## 혼돈을 깨고, 새 날을 향해

새벽을 알리는 긴 닭 울음이 울렸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대한민국은 질주합니다.
후손을 위한 망치질과 보다 큰 조국을 위한 통일운동은 끝이 없습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2017년 01월 Vol.123

# 통일시대

COVER STORY

## 2017 미·북 충돌로 갈 것이냐, 협상으로 갈 것이냐

〈편집위원 신년 좌담〉 불안정 요소 커지고, 갈등 깊어지고

한일정보협정 "싸울 건 싸워야하지만, 협력할 것은 협력하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통일의 길

통일아 통일아
너는 대체 어디에 있니
숨바꼭질 그만하고 나와줄래
어둑어둑 밤이 되어가는데
너를 찾을 수가 없구나
길을 잃어버렸으면 우리 집으로 와도 좋아
미안해 안 해도 돼
우리는 너를 기다릴게
언제든지 와도 좋아
통일아
우리는 너가 좋아

경북 칠곡군 대교초등학교 4학년 이혁호
〈민주평통 경북 칠곡군협의회 주관, 학생 평화통일 글짓기 공모 대상작(초등부)〉

포토_고병호 작가

# CONTENTS

2017년 1월 VOL.123

06

10

34

30

62

02 **이달의 메시지**
통일의 길

06 **커버스토리**
**정유년에 대한 우려와 기대**
미·북 충돌로 갈 것이냐
협상으로 것이냐

10 **특별좌담**
**〈통일시대〉 편집위원이 보는 2017년**
"불안정 요소 커지고, 갈등 깊어지고"
北, 핵 질주 통한 판갈이 전략 구사할 듯

14 **특집**
**트럼프 시대, 우리의 대미 활동은**
골든타임이 가기 전에
우리 의지 집어넣어라

18 **이슈**
**뜨는 RCEP, 지는 TPP**
메가 FTA의 경쟁 시대,
우리는 무엇을 잡을 것인가

22 **분석**
**한일 군사정보 협력 시대**
싸울 건 싸워야하지만, 협력할 것은 협력하자

26 **특집**
**탈북민 3만 명 시대, 통합 방안은?**
'북한 아빠, 중국 엄마, 한국 아이'의
가정을 대한민국의 가정으로…

30 **진단**
**문화 속의 통일 준비**
통일과 문화가 만났을 때
즐거움과 이해가 일어난다

34 **북한 IN**
**최순실 게이트 보도,**
**북한에는 약일까 독일까**
인민은 거꾸로 시위를 배운다!

36 **과거에서 미래를 찾는다**
**다시 보는 정유재란**
420년 전의 비극을 잊었는가

40 **지상중계**
**2016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
2017년 통일·대북정책 방향, 북한 인권
개선 방안 등 건의

42 **현장중계**
**201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협의회장 합동연수**
"심기일전해 우리 길은 우리가 열어야 한다"

44 **글로벌 평등**
**한일 평화통일포럼**
북한은 공통의 적, 한일 공조로 대처해가자

46 **인터뷰**
**최월아 북유럽협의회장**
"독일 통일의 경험과 지혜를
조국에 쏟고 싶다"

48 **정유년 나의 바람**
**"민족 저력 보여줄 날 오길"**
김시현, 홍솔비, 최기석, 김용호

50 **뉴스 & 민주평통**
김장 나눔 행사 열려
전남 영광군·경남 밀양시협의회
키르기스스탄지회, 호주협의회

60 **협의회 탐방**
**경북 구미시협의회**
"98명의 자문위원이
364명의 북한이탈주민과 하나 된다"

62 **통일문화유산**
**경주 불국사석굴암**
삼국통일이 만든
'창조의 공간' 속으로

66 **통일칼럼**
이참에 통일 문제의 '정치화'도
끝내버리자

**표지 이야기**
우렁찬 닭 울음소리와 함께
닭의 해(정유년)가 밝았다.
혼돈을 깨고 통일을 만들어가
야 하는 해가 시작된 것이다.
맹추위를 뚫고 솟구친 해이기
에 더욱 새빨갛다.(김형우 기자)


**통권 제115호** 2005년 5월 1일 창간
**발간등록번호** 11-1081000-000009-06
**발행일** 2017년 1월 1일
**발행인** 권태오
**발행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우)04605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84
**대변인실** 02-2250-2264~6
**기획편집위원** 김근식, 김영수, 김진하, 박인휘,
이희옥, 조봉현, 최우선
**편집디자인·인쇄** 동아일보 출판국·삼성문화인쇄(주)
**자료사진** 동아DB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입니다.
- 〈통일시대〉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일시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홈페이지(www.nuac.go.kr) e-book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유년에 대한 우려와 기대

# 미·북 충돌로 갈 것이냐 협상으로 갈 것이냐

불확실성이 높으면 불안해진다.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안한 것은 상대도 마찬가지니,
제대로 대처하면 승기를 잡을 수 있다.
한국은 늘 종속변수라는 의식을 버리고
국내 정세부터 풀어야 한다.

2017년 트럼프(왼쪽)와 김정은은 정면 충돌할 것인가, 대화를 선택할 것인가.

2017년 정유년을 맞아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정세는 격변기에 접어들었다. 지금과 같은 급격한 정세 변동은 중국의 공세적 현상 변경 정책과 북한의 무모한 핵무기 개발에서 촉발된 것이지만, 미국과 일본, 한국의 대응이 맞물리면서 가속화되고 있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출범과 한국 대통령의 탄핵 국면으로 이 지역의 안보 정세는 한 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예측불허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이 지역 안보 정세 변화의 최대 요인은 트럼프 미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국 동아시아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의 수출품에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국과 일본에는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관철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일본과 공동 개발한 미사일방어망(MD)에 대해서도 헛돈만 썼다고 투덜댔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등장에 대해 중국은 벌써부터 긴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37년 전의 미·대만 단교 이후 처음으로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전화 통화를 한 미국 정상이다. 당연히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크게 반발했다.

일본도 그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언급하지 않고, 아베노믹스를 뒷받침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취임하는 첫날 TPP를 탈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한국과 관련된 동아시아 최대의 안보 쟁점이었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의 한국 배치 문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문제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오바마 행정부의 관리들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드 배치에 1조5000억~2조 원이나 드는 데다 한국 내 여론이 분열돼 있어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렵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성균관대 정치학 박사,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북한연구학회장, 세계북한학학술대회 조직위원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안보실장·기획실장 역임. 저서 〈정치대국 일본: 일본의 정계개편과 21세기 국가전략〉 〈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 등 다수

사드 포대의 한국 배치도 변수가 되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마찬가지다. 사진은 괌에 있는 미 육군의 사드 포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한국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유지될지 단언하기 어렵다. 양대 쟁점은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과 한국 신정부의 성격에 따라 방향이 그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 사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미래는?

한반도의 안보 현안을 유발한 북한은 정유년을 맞아 어떤 행동으로 나올 것인가. 북한은 제7차 노동당 대회와 최고인민회의 13기 4차회의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기반을 굳혔다.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대미 평화협정을 주장한다. 2016년 7월에는 3년 3개월 만에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재거론하는 등 평화 공세를 펴오고 있다.

이 같은 북한의 평화 공세는 핵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한 핵군축회담을 요구하는 것이라 진정성은 없다. 하지만 적어도 미국에 대해서는 대화하자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실제로 그 뒤 미국의 전직 관료들과 북한 외무성 관리들이 몇 차례 비공식 접촉을 가졌다.

향후 북한의 대외·대남전략은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과 한국의 조기 대통령 선거 같은 정세를 고려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한국의 정정 불안과 트럼프 체제의 미정비를 틈타 북한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다.

다른 하나는 도발을 자제하면서 미국과 한

국 정세를 관망한 뒤 평화 공세로 나설 가능성이다. 미·북 대화의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신정부의 향배에 따라 남북대화가 조기에 재개될 수 있다.

### 정유년 북한의 선택은?

먼저, 북한이 선제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자. 지난 11월 30일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제5차 핵실험에 대해 결의안 2321호를 채택했다. 이튿날 한·미·일 3국은 대북 독자제재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재의 특징은 대량살상무기 개발 의혹과 직접 관련되지 않더라도 북한의 대외경제 자체를 제한하려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밝히고 "보다 강력한 자위적 대응조치를 불러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이 예고한 자위적 대응조치의 내용에 따라 정유년 한반도 정세는 달라질 수 있다. 북한의 대응도 핵실험만 실시할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병행할지에 따라 달라진다. 핵실험 없이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만 한다면 북한은 새로운 추가 제재를 피할 수 있다. 유엔은 비난을 담은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발표로 그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6차 핵실험과 같은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또다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불러오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내의 강경파들을 자극해 닫혀 있는 미·북 대화의 문은 더욱 열리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대북 제재를 더욱 엄격히 하고 선제타격을 비롯한 모든 옵션을 고려할 것이다. 북한은 한국 정부가 정정 불안으로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틈타 강력한 군사도발을 저지를 수 있다.

다음으로, 북한이 정세를 관망하면서 도발을 자제하고 평화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다. 북한은 스스로 '군사대국'을 달성했으므로, 이제는 미·북 대화와 남북대화에 무게를 실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북한은 오바마 정부 출범 직후인 2009년 4월과 5월에 장거리 로켓과 제2차 핵실험을 잇따라 실시해 그 바람에 미·북 직접대화를 주장하던 오바마 행정부와 대화할 기회를 잃고 말았다. 이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와병 이후 이른바 '군사대국' 프로그램을 우선시한 탓이다.

이런 경험 때문에 북한은 당분간 상황 전개를 관망하며 도발을 자제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한국의 대선 국면에서 '북풍'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핵실험은 물론이고 대남 군사도발도 자제할 공산이 크다.

한국에서 조기 대선이 결정될 경우,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은 대북 강경파에게 힘을 실어주고, 대화파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트럼프 미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한국의 조기 대통령 선거 추이를 지켜보며 관망할 수도 있다. 도발보다는 평화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트럼프 후보의 당선 직후인 지난 2016년 11월 17, 1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북 1.5트랙 접촉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은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재검토 결과를 기다리며 지켜볼 것이며 대북정책 윤곽이 드러나기 전에는 양국 관계 개선 혹은 협상 가능성의 문을 닫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보통 미국이 신행정부의 동아태 차관 인선과 정책 재검토에 7~8개월을 소진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북한은 적어도 2017년 상반기에는 미국을 자극할 만한 도발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안보 환경은 상수로 주어진 강대국 관계가 아니다. 한국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의 전략적 상호관계이다. 동아시아 정세가 급변해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관리할 수 있는 변수일 뿐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국과 1.5 트랙 만남을 위해 베이징을 경유해 스위스로 가고 있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 그는 미국과의 대화의 문을 닫지 않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안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2016년 11월 30일의 유엔 안보리.

### 한국은 종속변수가 아닌 독립변수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격변하고 있는 동아시아 질서 재편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은 어떤 방향으로 국가전략을 수립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진로로는 크게 미국(+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접근법과 남북대화를 통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역내 질서 재편에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접근법,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전자는 사드 논쟁에서 봐왔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북·중 간의 접근을 막을 수 없고 북핵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반면 후자는 북한 핵문제 관리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전제된다면 남북 간 화해를 통해 당면한 주변 국제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미·중 경쟁에 따른 외교적 딜레마도 최소화할 수 있다.

중견국가 한국에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더 이상 우리 운명을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존재가 아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은 상수로 주어진 강대국 관계가 아니며, 한국과 강대국이 포함된 역내 국가들의 전략적 상호관계이다. 동아시아 정세가 급변해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관리할 수 있는 변수일 뿐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NUAC

민주평통 기관지 편집위원이 보는 2017년

# "불안정 요소 커지고 갈등 깊어지고" 北, 핵 질주 통한 판갈이 전략 구사할 듯

**11월 25일 영종도 스카이리조트에서 〈통일시대〉와 〈e-행복한 통일〉를 만들어온 편집위원들이 2016년을 돌아보며 2017년을 예측하는 좌담회를 가졌다. 편집위원장인 김영수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 좌담에서 오고간 분석과 전망을 소개한다.**

정유년을 전망한 〈통일시대〉〈e-행복한 통일〉 편집위원들. 왼쪽부터 안제노, 조봉현, 김영수, 김근식, 이호령, 박인휘 씨.

2016년의 한반도를 정리하고 새해를 전망해주시지요.

**김근식**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로 긴장이 고조돼 남북관계가 파탄 났지요. 사랑하려고 했으나 이별로 끝난 한 해 같습니다. 북한은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를 접었고 우리는 대북 제재에 다걸기를 했으니…. 새해에도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박인휘** "북한의 핵능력이 완성 단계에 진입했으니, 북핵 문제에 대해 창의적으로 접근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통일은 멀어질 것 같습니다. 2017년의 키워드는 남북관계와 국내 상황, 그리고 트럼프의 미국인데 모두 어디로 갈지 예측하기 힘듭니다."

**이호령**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때 국내 주가가 하락했으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때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북한의 위협을 낮게 평가했다는 의미입니다. 2015년까지는 중국과 좋은 관계를 가졌다면, 2016년은 미·일과의 동맹과 관계를 강화한 한 해였습니다. 2017년에는 그에 따른 반발이 나오겠지요. 북한의 위협과 4강과의 관계가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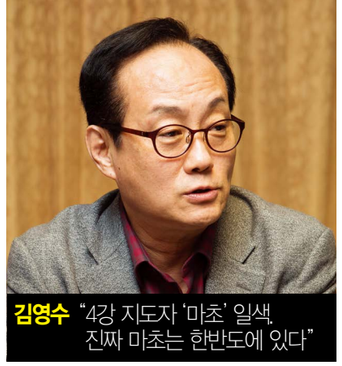
**조봉현** "2016년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개성공단마저 전면 중단됨으로써 남북 경제협력은 최악의 상황이 되었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로 북한의 고립은 심화되었습니다. 2017년에도 남북관계는 밝지 않을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증대돼 한반도는 예측불허의 요동을 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제노** "2016년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동북아 안보 환경과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을 넘어 위기 국면으로 접어든 해였습니다. 2017년 북한은 핵능력 고도화와 핵무기 실전 배치를 고집할 것이고 미국과 중국은 전략적 경쟁을 펼칠 것이니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트럼프의 대북·대(對)동북아 정책은 어떨 것 같나요.

**이호령** "미국이 전략적 인내를 한 이유는 북핵 문제 협상에 유리하게 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북한의 위협이 강해졌다고 볼 것이니,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과의 통상 문제를 더 중요하게 볼 것이니, 미·중 통상 문제에 합의하기 전까지는 북핵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박인휘** "오바마 행정부는 쿠바나 미얀마, 이란 문제에는 관심과 힘을 쏟아 성과를 올렸으나 북한 문제는 풀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전략적 인내를 했다는 것은, 역으로 우리에게 북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에, 우리는 제재에 전력을 기울여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과 실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유세 과정에서 그는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강조했으니, 미·중관계를 풀어내는 것에 따라 북한 문제를 푸는 방향도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김영수** "4강 지도자 '마초' 일색, 진짜 마초는 한반도에 있다"

**김근식** "2016년 '핵 질주'를 한 북한은 2017년에도 핵 질주를 이어가 판을 키우려 할 것이니, 협상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유세 때 트럼프는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며 대화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북한 문제에 대해 그가 깊은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트럼프의 생각에는 빈 공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백을 우리가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조봉현** "미국의 대북·대동북아 정책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정책 구조가 급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17년 하반기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색깔이 조금씩 나타나면서, 북·미관계도 변할 것으로 봅니다. 트럼프는 대화와 압박의 두 바퀴를 혼란스럽게 돌릴 수 있으니, 우리는 중심을 잘 잡아야 할 것입니다."

**안제노** "트럼프의 외교 방향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김정은에 대해 미치광이라 했다가 '능력을 인정한다. 만날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이는 그의 대북정책이 상황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동북아 정세 또한 트럼프 외교정책의 모호성과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2017년에는 더욱 험난해진다

트럼프 당선으로 미·일·중·러에서 모두 '마초'적 인물이 지도자가 됐다는 평가가 있던데, 2017년의 동북아 안보를 예측해주시지요.

**김근식** "불가측성 대 불가측성이 충돌할 것 같으니 거친 전망만 해봅시다. 김정은은 핵 질주를 거듭해 한두 차례 핵실험을 더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트럼프도 반응할 것인데, 북한 문제에 대해 뚜렷한 의견이 없으니 그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트럼프도 럭비공인 것입니다. 아베는 트럼프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 할 것인데, 트럼프는 푸틴과 정서적으로 먼저 통할 것 같습니다. 시진핑도 손해 보는 협상은 하지 않으려 할 것이니, 동북아는 유동성이 증가합니다. 우리는 4강 관계를 잘 예측해서 기선을 잡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조봉현** "중국은 보란 듯이 북한 지원, 한국엔 경제 보복"

**김근식** "핵 질주 계속하는 북한, 미국에 先평화협정 요구한다"

**박인휘** "김근식 교수 지적대로 북한은 핵실험을 거듭해 핵 개발을 완성할 것이니 1, 2년 뒤 동북아와 세계는 북한을 '불법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협상으로 북핵 문제를 푼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됩니다."

**이호령** "2017년 말 미국 등 주변국이 국방비를 얼마로 하느냐를 봐야겠지요. 중국은 A2AD(반접근지역거부. 미 해군이 동·남중국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접근할 경우엔 탄도미사일 등으로 타격하는 방식으로 거부한다는 전략)를 완성해가며 동북아에서 미국과 경쟁하려고 할 것입니다. 일본은 북한의 위협을 강하게 느끼고 있으니, 일본의 대응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일본은 사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정부 예산 대비 국방비는 세계 평균이 4%대이고 동북아는 8%대인데, 이는 동북아에 경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동북아는 쉽게 달아오를 수 있는 곳입니다."

**조봉현** "2017년의 동북아 안보는 경제가 지배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신냉전 구조가 형성되는 가운데,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더욱 중시해 경제전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 마찰,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일대일로(一帶一路) 및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중국이 주도하는 경제 흐름, 한국과 미국의 FTA 재협상 논란,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북한과 중국의 경제 밀월 등 복잡한 동북아 경제 역학관계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제노**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했던 트럼프의 생각은 집권 이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와 보호주의 강화로 무역분쟁이 일어나고, 남중국해 분쟁, 사드 문제 등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으로 동북아는 새로운 갈등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 북핵 완성으로 절박한 상황 전개

**우리는 러시아를 계륵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호령** "러시아는 중국과 인도 중심으로 아시아 쪽으로도 관심을 돌리고 있어요. 러시아는 대북제재안에 따라 중국이 못 하게 된 대북사업을 그들이 챙겨가려고 합니다. 함북지방 수해 때 러시아가 중국에 이어 지원을 해준 것도 한반도 문제에 대해 소프트파워를 유지하겠다는 맥락입니다."

**박인휘** "2012년 다시 집권한 푸틴은 '극동발전전략 2025'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유가 하락과 크림반도 사태에 따른 서방권의 제재로 경제가 어려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력이 생기면 푸틴은 극동을 발전시켜 아시아 문제에 의미 있는 행위자가 되려고 할 것입니다."

**박인휘** "북한을 불법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이냐 놓고 논란 예상"

**조봉현** "러시아는 극동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북한을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나진항 개발을 둘러싸고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고,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철도, 에너지, 농업 분야 등에서 북한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남·북·러 경제협력 모델도 모색해나가려 할 것입니다."

**안제노** "집권당인 통합러시아당의 승리로 푸틴은 안정적인 권력구도를 갖추었으니 이전 시기에 지속해온 대국주의적 세계전략을 추구해나갈 것으로 봅니다. 우리와의 관계는 대미, 대중의 관계 속에서 실용을 택하는 쪽으로 나갈 것으로 봅니다."

**2016년 9월 북한 외무성은 "핵보유국이라는 전략적 지위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핵무력 강화조치는 계속된다"라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대미정책을 예측해주시지요.**

**김근식** "북한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 비핵화와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제의했지만 북한은 일축했습니다. 비핵화를 한다면 미·북 평화협정 체결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중국도 못 받아들이는 것이니, 트럼프도 고민을 많이 할 것입니다."

**이호령** "합리적인 추정을 해본다면 2017년 북한은 6, 7차 핵실험 후 '더 이상의 핵실험은 없다'는 모라토리엄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일곱 번 핵실험을 한 후 '충분한 데이터를 얻었다'며 그렇게 했으니까요. 이는 '핵능력을 완비했으니 인정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동결'과 '비확산' 그리고 '불(不)사용'뿐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변화'를 통해서만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김근식** "이젠 '비핵화를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다'는 불편한 진실을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선(先)비핵화나 핵 불용은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을 밝히고, 미국은 이란 비핵화처럼 전혀 다른 해법을 찾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박인휘** "2017년 북한은 계획대로 핵능력 강화로 질주할 것이니, 미·북은 긴장된 탐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강 대 강 대결이나 의미 있는 협상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여기에는 미·중 협상의 결과가 큰 변수로 개입합니다. 2017년은 한반도 체제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를 놓고 긴장과 탐색 그리고 협상이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조봉현** "북한은 미국의 신정부 출범에 맞춰 대화에 나설 것입니다. 핵보유 명분 쌓기와 대북제재를 완화시키기 위한 전략적 대화에 불과하지만 노력은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일정 시점 이후 미국을 비난하며 6차 핵실험을 강행해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제노**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추진은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2016년과 같은 돌발적인 행태보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관망하며 정책 추진의 정도에 따라 평화공세 등 자신들의 실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봅니다."

### 북한, 핵 실전 배치 통해 한미 길들인다

**2017년은 김일성 탄생 105주년, 김정일 탄생 75주년이고 우리는 19대 대선이 예정돼 있습니다. 2017년 남북관계를 전망해주시지요.**

**조봉현** "중국은 북한을 제재할 뜻이 전혀 없습니다. 중국은 '유엔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7년에 신압록강대교 건설과 황금평 개발에 들어갑니다. 두만강 지역에서의 북한 관광도 활성화할 것입니다. 사드 배치를 결정한 한국에 대해서는 한류를 제한하는 한한령(限韓令)을 지속하며 여러 계약을 취소하는 등 보복을 가할 것입니다. 북한은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박인휘** "우리의 정치 사정,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트럼프 정부의 대응, 사드 배치와 중국의 대응, 그리고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대한 반작용 등으로 시끄러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남북관계는 결코 밝지 않습니다."

**이호령** "북한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핵 동결과 비확산, 불사용뿐"

**안제노** "북한은 한미 길들이기 전략으로 핵카드 제시한다"

**이호령** "한미동맹을 놓고 반미 주장까지 일어나 남남갈등이 격심해질 것입니다. 그러한 때 북한은 도발을 하겠지요. 그것이 다시 남남갈등을 야기해 북한 도발보다 더 큰 주목을 끌 것으로 봅니다.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통일을 강조하겠지요. 북한은 핵과 미사일 전력을 앞세워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세칭 판갈이 전략을 구사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근식** "한국 상황은 북한에 전혀 변수가 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북한은 트럼프의 미국을 주시하며 주판알을 튀길 것입니다. 한국이 무시되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과 통미봉남이 회자되면서 반미운동과 독자적인 핵무장론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사태가 어떤 일을 만들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안제노**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규모 행사 개최를 통해 위상을 과시할 것이고, 미국 신행정부와 우리를 길들이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봅니다. 길들이기는 북한의 출구전략과 관련된 것으로, 핵무기 실전 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남북관계는 냉탕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NUAC

트럼프 시대, 우리의 대미 활동은

# 골든타임이 가기 전에 우리 의지 집어넣어라

**아직 트럼프 정부의 대(對)한반도 정책은 백지 상태에 가깝다. 워싱턴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의 의견을 트럼프 행정부에 주입해야 한다. 우리의 국익을 위해.**

2016년 12월 9일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사례 투어 행사가 열린 루이지애나주 배턴루지 공항의 다우케미컬 격납고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문구가 적힌 모자를 청중에게 던지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 최우선주의'는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미국의 주류 언론은 물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승리를 기대했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트럼프 캠프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에 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 미국의 차기 행정부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은 불안과 불확실성에 사로잡혀 있다.

##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America First)'을 기조로 하기에 대외 문제에 대한 개입과 역할은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독트린의 기조는 로널드 레이건의 구상에 연결되며, 그 핵심은 '경제적, 군사적 힘에 의한 평화(Peace through economic and military strength)'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갈수록 위험스러워지는 세계에서 미국의 안전을 지키는 최상의 방법은 '위대한 미국의 재건'이라고 생각한다. 그 출발점은 미국 내부의 경제 부흥에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에 따라 해외 군사 개입 축소, 동맹 및 우방에 대한 방위 분담비 확대, 세계경찰의 역할 대신 미국 국익에 집중하는 고립주의적 노선을 시사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대외 경제정책도 미국의 경제 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둔다. 보호무역주의 전면 도입을 주장할 전망이다. 트럼프는 전 세계에 걸친 기업 활동을 하면서 미국을 쓸모없고 소모적인 전쟁의 수렁으로 끌고들어간 이른바 '국가 건설(Nation Building)'에 강한 반감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외교안보 책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군사안보 정책을 가늠하긴 어렵지만, 현재 거론되는 외교안보 분야 주요 직책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면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의 국제안보 기조는 9·11 시대와 유사해질 전망이다. 거론되고 있는 외교안보 주요 직책자가 매파 일색이기 때문이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내정된 마이클 플린, 국방장관 후보인 제임스 매티스 전 중부군사령관,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데이비드 페트레이어스 전 CIA 국장이 그러한 인물들이다. 대안 우파의 사령관 격으로 백악관 수석전략가 겸 선임고문에 지명된 스티브 배넌을 비롯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내정자, 마이크 폼피오 CIA 국장 내정자 등도 강경 우파에 속한다.

9·11 이후 그랬듯이 백악관이 이슬람 테러와의 전면전에 다시 나서면 여타 안보 이슈들에 대한 관심은 저하돼 러시아에 강대국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아시아 선회(Pivot to Asia)'를 약화시켜 중국의 경제·외교적 지배력을 키워줄 가능성이 크다. 대테러 전쟁에 대한 집착은 이란과의 대결 위험을 높이고 미국 동맹국들은 물론이고 미국 국내의 시민적 자유를 위해서도 좋은 징조는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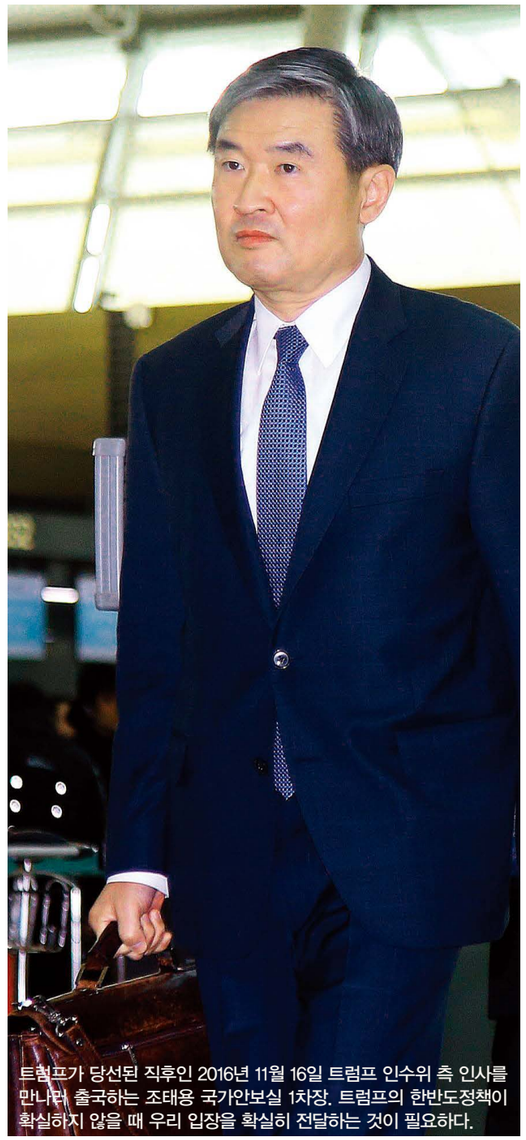
우리에게 더 큰 관심은 트럼프 시대 개막이 한미관계에 미칠 파장과 영향이다. 한미관계와 관련해서는 안보와 경제,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한 정책 변화와 대응이 요구된다. 대선 기간 내내 트럼프 후보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상의 문제점을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즉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선 과정에서 이 문제가 공론화된 이상 트럼프 정부는 이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는 "우리는 일본을 방어하고 한국을 방어하는데 그들은 우리한테 (공정한 몫의) 돈을 안 낸다"면서 한국을 안보 무임승차국으로 규정했다. 그의 측근은 미국은 국내총생산(GDP)의 3.5%를 국방비로 지출하는데, 일본은 1.0%, 독일은 1.1%, '절대적 미치광이를 이웃한(with an absolute madman on it's border)' 한국은 2.6%에 불과하다는 수치를 강조한 바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도 국익 위주로 생각해야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정치학 박사.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 외교통상부 정책기획관, 매일경제 객원논설위원 등 역임. 현재 한국핵정책학회 회장, 민주평통 기획조정위 간사. 공저에 〈한국의 국가전략 2030 : 안보〉, 〈한국의 중견국외교론〉 등이 있다.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인 2016년 11월 16일 트럼프 인수위 측 인사를 만나러 출국하는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 트럼프의 한반도정책이 확실하지 않을 때 우리 입장을 확실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트럼프 정부 첫 100일 혹은 200일 플랜에 한미관계나 북핵 문제는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대(對)한반도 정책이 정립되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원하는 정책적 입장을 신속하고 정확히 트럼프의 인수위에 전달하는 일이다.**

2016년 11월 17일 도쿄의 하네다 공항을 출국하는 아베 일본 총리 부부. 같은 날 뉴욕에 도착한 아베는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 일본의 의견을 전달했다(왼쪽). 한국 육군 6공병여단과 미 2사단 기갑공병부대가 한미 연합 도하훈련을 마친 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트럼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국방비가 적다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다. 미국이 거칠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오면 단호히 거부하고,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통해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우리 안보를 미국에 매달려 해결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할 때가 됐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오히려 우리의 자체 역량을 키우는 계기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국은 GDP의 2.6%밖에 쓰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이래 보수정권이 그런 면에서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여건 확보를 위한 전력 투자도 현재보다 과감히 늘려야 한다. 한국 방위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미국에 미루지 말아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경제정책은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강하게 띨 것이 확실하다. 미 의회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의 논의를 중단해 TPP는 사실상 폐기되는 수순에 들어섰다. 한미 FTA 이행조치의 원만하고 신속한 해결 요구도 증대될 가능성이 높고, 최악의 경우 재협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는 한미 FTA는 물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을 주장하며 TPP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거의 알려진 게 없다는 데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은 미치광이라고 했다가 햄버거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하는 등 정제되지 않은 몇 가지 발언을 했다. 분명한 것은 미국 차기 정부는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대체할 새로운 대북정책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지속적 고도화에 대해서는 일치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이 급속히 강화됐기에 미국도 북한의 위협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은 백지에 가까운 상태인 만큼 미·북 대화를 재개할지,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병행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국회도 트럼프와의 관계를 터야 한다. 2016년 11월 16일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소위원회 위원장(공화당, 앞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을 만난 여야 의원들. 뒷줄 왼쪽부터 김부겸, 나경원, 정동영, 조배숙, 정병국 의원이다.

### 기다리지 말고 먼저 접근하라

최근 미·북 간의 민간인 접촉을 통해 나오는 의견은 북한을 한 번에 비핵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니 동결 후 장기적 비핵화로 가자는 것이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나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 존 울프스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축·비확산 담당 선임국장 등은 북한의 비핵화가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핵 개발을 먼저 동결시켜야 한다며, 차기 미 행정부는 제재를 강화하면서도 한국, 일본과 더불어 북한과 대화와 접촉을 병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직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이나 한반도 정책은 불확실하다. 트럼프 정부 첫 100일 혹은 200일 플랜에 한미관계나 북핵 문제는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대(對)한반도 정책이 정립되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은 한국이 원하는 정책적 입장을 신속하고 정확히 트럼프 인수위에 전달하는 일이다.

이슈별로 우리가 원하는 정책 목표와 방향, 협력 범위 등을 정확히 전달해 차기 미국 행정부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의 교훈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면 동맹국들은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워싱턴의 정책이 입안되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릴 게 아니라 트럼프 정부와 의회를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다 가기 전에 우리 정부의 외교적 리더십이 조속히 발휘되기를 기대해본다. NUAC

뜨는 RCEP, 지는 TPP

# 메가 FTA의 경쟁 시대, 우리는 무엇을 잡을 것인가

**미국 대통령 당선자인 트럼프가 TPP 참여 거부를 선언했다. 자유무역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무역국가이기에 FTA에 들어가야 산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2016년 9월 8일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마친 뒤 RCEP에 참여한 12개국 정상은 따로 정상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국가로 미국과 중국이 꼽힌다. 언론은 이 두 나라를 '세계 2대 강국(G2)'이라 부르며 최강자로 대우한다. 그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스스로에게 미칠 영향을 저울질하기에 바쁘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표되는 자유무역 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2016년 6월 말 현재 전 세계에서 424개의 FTA가 발효 중인데, 상당 부분이 미국과 중국이 주인공이다. 앞으로 전개될 다자간 FTA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주인공이 되는 현상은 예외가 아닐 것이다.

FTA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자. 모든 나라는 '관세선(線)'이라는 보이지 않는 선을 긋고 있다. 이 선을 넘어오는 외국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 또한 특별한 규격이나 인증을 받게 하는 장벽도 설치해놓고 있다.

**최용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
광운대 경영학 박사.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장과 비서실장 등 역임. 중앙대·부산대·중국 칭화대 등에서 무역실무, 삼성물산·삼성전자·상공회의소 등에서 국제통상 강의. 저서 〈중국은 지금〉, 〈중국시장 체크포인트〉, 〈용의 경제에 올라타라〉, 〈천의 얼굴 중국시장 체크포인트〉 등

FTA는 외국 제품이 쉽게 내수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만든 갖가지 장벽을, 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 나라의 제품은 자국 제품처럼 내수시장에 쉽게 들어오도록 혜택을 주는 조치다.

한중 FTA가 2015년 12월 20일부터 발효됐다. 이 때문에 중국은 한국 제품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거나 없애고, 서비스와 투자 부문도 한국에는 폭을 확대했다.

최근에 중국에서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구 등을 수출하려면 인증이 큰 장벽으로 작용한다. 한국과 중국은 이 장벽을 FTA에서 다룰 것이니, 한국은 중국 진출이 유리해진다. 한국 중소기업은 수출을 확대할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다.

### FTA 주도국으로 떠오른 대한민국

기업만 좋은 것은 아니다. FTA는 물가 안정을 통한 소비자의 복지를 증대하는 것을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한다. 왜냐하면 수입품에 붙는 관세가 없어져 제품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포도주에서 그 사례를 찾을 수 있다. 포도주는 소득이 높은 사람만 접할 수 있는 상품이었지만, 2004년 한국과 칠레 간 FTA가 발효되면서 15%에 달하던 수입관세가 없어져 포도주 가격이 내려가 서민들도 마트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매년 7월 수입차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고급차 브랜드가 많기로 소문난 유럽연합(EU)과 맺은 FTA가 발효돼 수입차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2004년만 해도 FTA 후진국이었다. 당시에는 몽골과 한국만이 FTA가 1건도 없는 나라라는 말이 회자되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은 FTA를 주도하는 나라다. 2015년 한국은 캐나다와의 FTA를

2015년 10월 5일 미국 애틀란타에서 미국 등 12개국 대표가 환태평양경제공동체(TPP) 협정을 타결한 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는 이 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시작으로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과 맺은 FTA를 발효시켜 52개국(15건)과 FTA를 발효시킨 나라가 되었다.

거대시장인 미국과 EU는 물론이고 중국 및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FTA를 맺은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2016년에는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FTA 파트너를 찾기 위한 노력을 전개했다.

FTA 발효로 한국 제품이 관세 혜택을 받으면서 진입할 수 있게 된 해외시장을 우리는 '경제영토'라고 칭하는데 그 면적이 전 세계 육지의 70%를 넘어섰다. FTA에서 가장 후진적이었던 대한민국이 10여 년 만에 선두권으로 치고 올라온 것이다.

FTA 바람이 전 세계로 번지면서 최근 새로운 현상이 출현했다. 기존에는 마음에 맞는 국가와 1 : 1로 하는 FTA가 추진됐지만 지금은 동시에 많은 나라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있다. 1개 FTA에 10여 개 국가가 발을 들여놓는 것이 흔해진 것이다. 이를 '메가(Mega) FTA'라고 하는데, 그동안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이 대표적이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국가 간에 진행 중인 다자간 FTA를 말한다. 2005년 6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이 시작해, 2013년 4월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베트남, 말레이시아, 페루 등 7개국이 추가되고, 나중에 일본이 합류해 12개국이 참가국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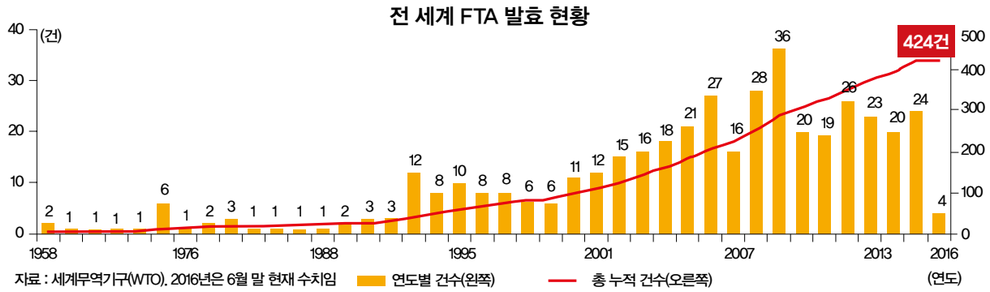
경제력의 기준인 국내총생산(GDP) 측면에서 TPP 참여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육박해, 잘사는 나라들의 집합체라는 평가를 들었다. 이들이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분의 1에 달해 '국제무역에 대한 새로운 룰도 만들 수 있는 지배력을 확보할 것이다'와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라들만 멤버로 골랐다'는 소리도 들었다.

## 중화권 국가가 주축인 RCEP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적극적인 행보에 힘입어 TPP는 빠른 속도로 추진됐으나, 트럼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고 대외 개방이 미국의 일자리를 줄인다는 논리가 확산되면서 TPP가 표류에 들어간 것이다.

주도 국가인 미국이 빠지면서 일본이 그 자리를 메우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역부족인지라 당분간 FTA 협상

**전 세계 FTA 발효 현황**




자료 : 세계무역기구(WTO). 2016년은 6월 말 현재 수치임 연도별 건수(왼쪽) 총 누적 건수(오른쪽)



**TPP와 RCEP의 기본 요소 비교**

| 국가 | 국토 면적 (천 ㎢) | 인구 (백만 명) | 명목 GDP (십억 달러) | 수출 (십억 달러) | 수입 (십억 달러) | 대 세계 교역 (십억 달러) | 역내 교역 비중(%) | 투자 | |
|---|---|---|---|---|---|---|---|---|---|
| | | | | | | | | FDI(십억 달러) | ODI(십억 달러) |
| TPP | 31,163.2 | 799.0 〈11.4〉 | 27,718.9 〈37.1〉 | 4,321.7 | 5,167.7 | 9,489.4 〈25.8〉 | 42.3 | 8,183.1 | 9,447.1 |
| RCEP | 25,094.8 | 3,421.4 〈48.7〉 | 21,646.9 〈29.0〉 | 5,355.5 | 5,316.4 | 10,671.9 〈29.0〉 | 42.4 | 3,750.4 | 3,156.0 |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은 해당 지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2014년 기준)

성공 스토리에서 TPP가 회자되기는 힘든 국면이다.

반면 중국을 포함해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부상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6개국 정상들은 2012년 11월 20일에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공동선언문을 통해 RCEP 협상을 2015년까지 타결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일정이 지연되면서 타결이 쉽지 않은 형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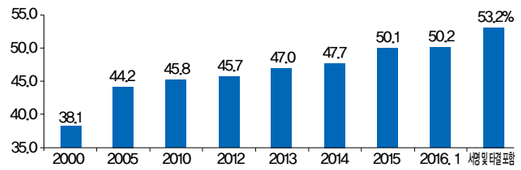
이 협정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다. 중화권 나라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중국이 주도권을 발휘하는 양상이다. 그동안은 TPP보다 느슨한 형태로 무역 자유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TPP의 급속한 진전에 위기감을 느껴온 중국이 세력을 결집하며 기관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여러 나라가 동시에 참가하는 FTA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것은 1 : 1 협상만으로는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했음에도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힘들고, 협정 내용도 복잡해져 기업들이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다. 이를 '스파게티 볼(스파게티 접시)' 효과라고 한다.

개별 국가별로 FTA 규정이 다르면 기업들이 준비해야 하는 내용과 서류가 복잡해져 FTA 활용을 주저하게 된다. 스파게티를 먹을 때 국수 가닥이 얽혀 있으면 먹기 힘든 것과 같은 맥락이다.

TTP와 RCEP는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는 공통점 외에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통상 대결구도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TPP가 현재의 경제 강국 결합체라면, RCEP는 미래에 세계경제를 선도할 나라들의

**세계 총 수출 대비 주요국(73개국)의 FTA 수출 비중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

집합체라로 볼 수 있다. RCEP가 체결되면 역내 인구가 34억 명에 달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게 된다.

이제 전 세계는 FTA로 경쟁하는 시대에 진입했다. FTA가 체결된 국가 간에 무역이 진행되는 비율이 50% 전후임을 감안할 때 FTA 활용은 모든 국가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가 되고 있다. 기업들이 좀 더 편하게 해외 마케팅을 전개할 수 있고, 비즈니스 환경이 좋아야만 외국 기업이 국내로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을 하면 기업만 좋은 일이라고 속단할 수 있다. 또한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이나 농민은 계속 손해 볼 구조라고 불평한다. 그러나 FTA의 근본 취지는 일자리 창출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기업의 수출 증대는 곧바로 일자리 증대로 연결되고, 수입품이 좀 더 저렴하게 수입된다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농업 등 취약 분야에는 정부 지원금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새로운 디딤돌을 제공해주는 것도 FTA가 가져온 혜택이다. 기업들은 FTA 전문가를 육성해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해외에서 빠르게 통관할 수 있는 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FTA는 그 혜택이 크지만, 기업이 활용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NUAC

2016년 11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서명하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이 협정 체결로 한국은 좀 더 많은 대북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 한일 군사정보 협력 시대

# 싸울 건 싸워야하지만, 협력할 것은 협력하자

**북핵 위기가 엄중한 이때 일본과 정보 협력을 하는 것은 우리 안보를 강화해준다. 우리는 일본과 감정적으로 대립할 게 아니라 냉정한 안보논리로 무장해야 한다.**

**김태우** 건양대 군사학부 교수
미국 뉴욕주립대 정치학 박사,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대외협력실장·국방현안연구위원장, 국회 정책연구위원, 해군·공군·해병대 자문위원, 통일연구원장 등 역임. 저서 〈북핵, 감기인가 암인가〉 외 다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이 체결됐다. 2016년 11월 23일 국방부 청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양국을 대표해 서명한 것이다.

물론 이것으로 한일 간 군사정보 협력 시대가 활짝 열렸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한일 간에는 여전히 많은 미해결 사안들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 서로에 대한 국민 감정도 나쁘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북핵 문제의 엄중성이 가중되면서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 협력을 통해 공동의 안보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공간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정보를 포함한 안보 협력은 냉정한 안보논리하에서 다른 문제와 분리해 다룰 필요가 있다.

한일 양국은 1965년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정상화했다. 기본조약은 합병조약을 무효화했지만 식민 통치의 불법성과 일본의 사과를 명시하지 않았다. 무상 3억 달러와 유상 2억 달러의 청구권 자금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청구권협정도 '전쟁에 대한 배상이나 식민 지배에 대한 보상'을 명시하지 못했다.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 청산'이라는 표현에 그쳤다.

### 감정과 국익 사이

대신 일본은 기본조약을 가서명하면서 양국 외무장관 공동성명을 통해 '유감과 반성'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후 일본 지도자들의 반복된 망언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 우경화 역사교과서 출판 등으로 일본의 사죄는 퇴색됐다. 그런 상황에서도 양국이 경제 교류를 확대하며 서방세계의 일원으로 비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한 것은 냉전이라는 시대적 배경과 미국의 권유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한일관계는 순탄하지 않았다. 아베 정부 이후 일본의 우경화와 재무장, 과거사 부인, 전후체제 청산 시도, 독도 영토주권 시비 등은 한국민의 반일정서를 자극했다. 그럼에도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안보 정세 때문이었다.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북핵을 '공통의 위협'으로 인식하면서, 군사정보 협력의 필요성이 재부상했다. 2009년 북한의 제2차 핵실험과 2010년 천안함 폭침 사태를 거치면서 한일 국방장관은 2010년 6월 샹그릴라 대화(2000년부터 매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에 공감해 2011년 1월 국방장관 회담에서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문안이 2012년 4월 23일 가서명되고, 6월 26일에는 국무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국민의 반일감정을 무시한 밀실 추진'이라는 이유로 정부를 질타했고, 이명박 정부는 서명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후 한일관계는 급속히 냉각됐고,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에 대한 충고 발언으로 일본 국민의 반한정서가 확산됐다.

이 과정에서 희생자도 발생했다. 2012년 7월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조세영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밀실 추진'의 책임을 지고 사임하고, 필자 또한 유탄(?)을 맞아 통일연구원장직을 떠나야 했다.

필자는 2012년 8월 23일 통일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린 "'한일 외교전쟁 조속히 매듭지어야'"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일본의 역사 왜곡을 비판하고 군국주의 부활을

일본의 조기경보기인 EC-767. 경보기 전력도 물론 일본이 강하다(17 대 4). 기술정보(테킨트)에서 일본은 한국을 앞서고 있다.

경계하면서도 한일관계의 파탄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독도와 그 주변 영해에 대한 한국의 영토주권을 인정하고 대신 한국은 인근 해역의 해상자원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독도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일본이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변 해역을 공동어로수역으로 정하고 있는 현 상황보다는 필자의 제안이 한국에 더 유리한 것인데도, 일부 언론은 '통일연구원장이 독도자원 공유를 제안했다'는 부분만 부각시켰다. 일부 국회의원은 필자에 대한 중징계까지 요구했다.

정치권의 시비에 직면한 필자는 2012년 10월 원장직을 사임했다. 이렇듯 국민의 반일정서는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추진하는 공직자들에게 언제나 넘기 힘든 장애물이다.

### 한국의 휴민트, 일본의 테킨트

이후 북한은 핵무력 고도화를 줄기차게 지속했다. 2013년에는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두 차례에 걸쳐 '우주개발용'이라는 미명하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체인 광명성 3호를 발사했다. 이에 한·미·일 3국은 2014년 '3국 간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공유약정(TISA, Trilateral Information-Sharing Agreement)을 발효시켰다.

북핵 고도화는 지속됐다. 북한은 2016년 두 차례 핵실험을 강행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포함해 24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미사일을 대부분 일본 쪽 해역으로 발사했으나 6월 22일에는 무수단을 고각(高角)으로 발사해 500km만 비행하도록 함으로써, 중거리 미사일로 한국 수도권을 강타할 수 있음을 과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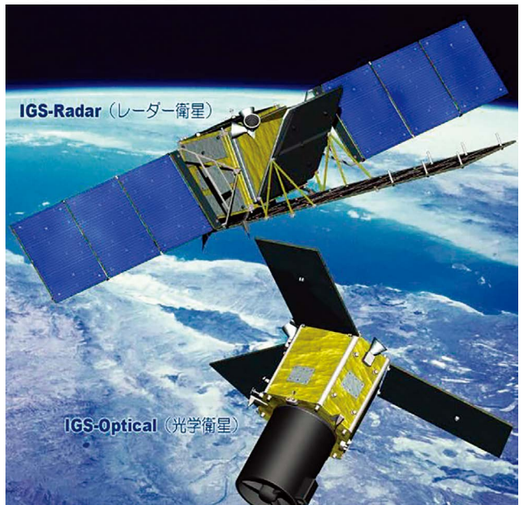
이렇듯 북핵 위협이 엄중해지자 한일 양국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추진하게 되었고, 2016년 11월 23일 서명하기에 이르렀다. 그다음 날 중국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군사동맹을 위한 조약'으로 과장·왜곡해 보도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이 아니다. 동맹조약은 더더욱 아니다. 이 협정은 상대국으로부터 받는 군사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고 전달·보관·관리·폐기하는 절차를 합의한 것이다. Ⅰ급 비밀을 제외한 Ⅱ급 비밀 이하의 군사비밀만을 교환 대상으로 한다. 교환할 정보들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정보 교환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한국은 32개국과 정부 간 또는 국방부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다. 중국과도 협정을 모색하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서명으로 북핵 대처에 유의미한 상호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을 거쳐야만 정보 공유가 가능했던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약정'의 한계를 넘어 일본과 직접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큰 의미다. 둘째, 한국은

일본이 쏘아 올린 2세대 정보수집위성. 위는 레이더 위성이고 아래는 광학위성이다. 위성 전력은 5 대 2의 비율로 일본이 한국보다 세다.






**일본과의 협력을 거론하면 무조건 '친일'로 모는 저급한 논쟁은 사라져야 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양국에 냉정한 안보논리로 안보 협력을 다뤄나가는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인간정보(Humint)와 한국이 먼저 탐지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제공해주고, 일본으로부터 우수한 기계정보(Techint)들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은 5기의 정보수집위성, 6척의 이지스함, 1000km 이상을 탐지할 수 있는 4기의 지상 레이더, 17대의 조기경보기, 77대의 해상초계기 등을 보유하고 있다. 잠수함 정보와 감청능력(Sigint)은 최강국이다. 북한의 SLBM이 향후 한국에 최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잠수함 활동에 대한 정보를 최대로 확보하는 것은 한국의 지대한 안보 과제가 된다.

셋째, 중복 정보를 통해 정보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위성 감시 횟수가 많을수록 영상정보의 질은 개선된다. 정보 교환을 통해 정보 사각지대도 줄일 수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좀 더 신속하고 정확히 파악하게 해줌으로써 한국 안보에 기여한다. 한국군이 북핵 억제를 위해 구축하는 선제타격(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및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그리고 응징체계(KMPR)의 효율성도 제고해줄 것이다.

### 냉정한 안보논리로 바라보자

한일 간에는 과거사 문제, 독도 영토주권 문제, 일본 내의 혐한정서 등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결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한국으로서는 당연히 다툴 것은 다투고 주장할 것은 주장해야 한다. 그러나 서로의 안보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안이 있다면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툴 사안과 협력할 사안을 분리해서 다루는 냉정함이 필요하다. 이는 인내를 필요로 하는 과정이다. 가해자였던 일본이 더 많은 인내를 발휘해야 마땅하다.

정부는 한일 간 안보 협력을 추구할 때에는 국민에게 성실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충분한 찬반 논의를 거치는 것도 필요하다. 찬반 논의가 악의적으로 왜곡·과장되는 것을 막는 역할은 지식인의 책무일 것이다.

이번에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서명하면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마음대로 진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동맹국인 미국도 한국에 군대를 전개할 때는 한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런 주장은 황당한 자기비하일 뿐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공식적으로는 북한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비공식적으로는 북한 정권의 생존을 지원해왔다는 사실에 비춰본다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북·중·러 대 한·미·일이라는 냉전적 대결을 부추긴다"고 하는 것도 원인과 대응을 뒤바꾼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일본과의 협력을 거론하면 무조건 '친일'로 모는 저급한 논쟁은 사라져야 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양국에 냉정한 안보논리로 안보 협력을 다뤄나가는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NUAC

일본의 '아타고' 이지스 구축함. 한국의 이지스함은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만 하나 일본의 이지스함은 요격미사일을 발사해 격파할 수도 있다. 이지스함 척수도 일본이 6 대 3의 비율로 강하다.

탈북민 3만 명 시대, 실질적 통합 방안은?

# ‘북한 아빠, 중국 엄마, 한국 아이’의 가정을 어떻게 대한민국의 가정으로 만들 것인가

**대한민국에 이미 정착한 탈북민은 ‘탈북민’에서 제외하고 새 탈북민을 정착 지원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어법을 교육시켜 법을 지키는 탈북민을 만들어야 한다.**

경기 안성시 소재 하나원 1층 교육장에서 탈북자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강대 정치학 박사. 서강대 부총장, 북한연구학회장 및 북한이탈주민연구학회장 역임. 민주평통 운영위원 및 통일정책위원장. 통일부·국방부 정책자문위원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은 2016년 11월 통일부는 ‘사회통합형’ 정책을 내놓았다. 보호·지원과 자립·자활을 넘어 이들이 진정한 우리 사회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존 정책을 보강했다.

탈북민을 친근한 이웃으로 느끼도록 사회 인식을 개선하고, 탈북민 정책의 협업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 사이에 유기적 협업체제를 구축해 지원체계의 효율화를 꾀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정착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구체화하고 탈북민의 역량을 높인다는 다양한 구상도 포함했다.

달라진 정착 환경과 입국하는 탈북민의 특성을 반영한 정부의 개선 방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탈북민과 함께하는 실질적인 사회 통합 방안을 재점검해본다.

첫째,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았으니 탈북민이 몇 년 정착하면 탈북민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정착의 연한을 정하든지 아니면 정착 정도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어, 어느 정도까지를 탈북민에 포함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탈북민 누계도 중요하지만, 정책 대상이 되는 탈북민이 몇 명인지 설정하는 ‘정책 수혜 대상 탈북민’을 적실성 있게 산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탈북자 수로 체제 경쟁을 하던 단계가 지났기 때문이다. 탈북민도 한국에서 몇 년을 지내거나 어느 수준 이상으로 정착하면 탈북민이 아니라 비(非)탈북민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3만여 명 중에서 ‘헌 새터민’은 솎아내고, ‘새 새터민’에게 사회통합형 정책을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보호 및 조사 단계에서 ‘대한민국 법 준수 의식’ 교육을 더 비중 있게 실시해야 한다. 탈북민의 심리 안정과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야 하지만, 새로운 사회인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기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준법의식과 국가 정체성을 함양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나는 북에서도 법을 지키지 않고 살았는데, 여기서도 법을 지킬 필요가 뭐 있느냐”고 하는 탈북민을 우리 사회에 그대로 편입시킬 수는 없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이해하는 기초교육과 함께 대한민국의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준법의식을 확실하게 인지시키는 강도 높은 교육이 실행돼야 한다.

## 대한민국 법 준수의식교육 강화해야

언어교육에도 예전과 다른 관심과 비중을 두어야 한다. 우리말을 하는 동포라고 가볍게 여기기에는 남북의 언어가 너무 달라졌다. 언어는 정착과 자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소인데 우리는 이 점을 간과했다. 최근에야 이 점에 눈을 떠 하나원 기초 적응교육에서 언어교육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

일본으로 탈출한 북송교포의 자녀들이 일본어를 모른

화교 간첩 용의자로 기소됐으나 2014년 무죄를 선고받고 추방된 중국인 유우성. 탈북자로 위장한 유 씨가 유유히 한국 대학을 다니고 정착 생활을 한 것은 탈북민의 올바른 정착을 막는다.

**멘토는 일정 정도의 사전교육을 수료한 이에게만 주는 제도화 과정이 필요하다. 민주평통이 발간한 멘토링 사례집을 읽어보고 학습하는 최소한의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채 일본에 거주하게 됐기에 오히려 일본에 정착하기 쉬웠다는 사실이 언어교육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언어 배우기로 일본 적응을 시작하다 보면 자연스레 일본 문화와 사회를 습득하더라는 것이다.

셋째, 탈북민의 가족 실태를 감안한 정책이 실행돼야 한다. 온전한 가족을 구성하고 들어온 탈북민이 전체 탈북자의 4% 남짓한 상황을 도외시한 채 가족 관련 정책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북한 아버지, 중국 엄마, 남한 아이'라는 가족 구성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북한식 삶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아버지, 중국에서 오래 살아서 중국식 삶에 익숙해진 엄마, 엉겁결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정착하게 된 아이 중에서 한국 생활에 가장 잘 적응하는 것은 어린 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야말로 다문화가정이다. 겉으로는 온전해도 부조화와 갈등이 내재한 가족인 것이다.

이런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세심한 심리 상담과 치료가 가능한 정착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실질적 사회 통합'의 목표가 돼야 한다. 그래야 북한 주민들이 오고 싶어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다.

2016년 10월 12일 경기 안성시 하나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외통위 의원들이 하나원의 현황을 설명듣고 있다. 이제는 보고와 통계를 위한 탈북민 정착 교육보다 탈북민을 대한민국인으로 만드는 실질적인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넷째, 전체 탈북민의 80%를 상회하는 여성 탈북민을 배려하고 보살피는 정책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 그들이 처한 무를 수 없는 기막힌 사연을 따뜻한 정책으로 풀어주는 융통성이 부족하다.

미혼모 혜택을 받기 위해 한국에서 결혼해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 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학교에 진학하고서도 '아빠 있는 아빠 없는 아이'로 자라는 경우가 발생한다.

### 3국에서 태어난 탈북 자녀 배려해야

당사자들은 "미혼모 혜택을 일정 기간 줄 수 없느냐"고 탄원해보지만, 법이 정한 기준 때문에 예외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착, 출산, 결혼, 양육 등의 짐을 모두 짊어져야 하는 탈북 미혼모의 애로사항을 보듬는 따뜻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번에 마련한 방안 중에는 제3국 출생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양육가산금 제도)도 포함돼 있다(현재 법제처 심사 중). 이 방안이 시행되면 이들에 대한 정원 내 대학 특례입학과 대학 첫 학기 등록금 지원도 가능해질 것이다. 이중언어 강사 배치와 언어교재 개발도 이루어진다.

2016년 12월 현재 2500명이 넘는 탈북 청소년 가운데 제3국 출생 자녀가 1300명이 넘는 현실을 고려해 마련한 적극적인 정책이다. 그러나 첫 학기 등록금만 지원해주면 다음 학기부터는 학교를 그만둬야 하느냐는 걱정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후속 방안을 정부는 고심해야 한다. 왜 '첫 학기 지원'이라는 발상이 나오게 되었는지도 무척 궁금하다.

민주평통 부산진구협의회가 개최한 통일 수다방. 남북의 주부들이 터놓고 시집 흉을 보다 보면 하나가 된다. 탈북민의 80%가 넘는 탈북 여성을 우리 사회가 끌어안으려면 흉금 없는 멘토링이 필요하다.

다섯째, 법의 틈새를 나쁘게 활용하거나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묵인하는 정책적 무관심이나 직무유기를 근절해야 한다. 좋은 규정과 법을 만들기만 하고 이의 시행을 엄격하게 하지 못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부작용만 초래하고 만다. 오래된 묵인의 대표적인 사례가 기초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 가짜 진단서를 제출하는 사례다.

'어느 병원에 얼마를 내면 가짜 진단서를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는 탈북민의 남한살이 처세술이 새로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에게 전수되고 있다. 임대주택 거주 자격을 잃지 않으려고,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정착 관련 법망의 틈새를 나쁘게 활용하는 것이다. 정책은 만드는 것만큼 엄격히 실행하는 것에도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

여섯째, 청소년의 학교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사회통합형 정책에 포함시킨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대학 과정을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해야 한다. 특별전형을 통해 여름 또는 가을에 합격한 경우 다음 연도의 입학 전까지를 대학 오리엔테이션 기간으로 정하고, 이를 이수해야만 장학금을 주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 필수로 이수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예비대학 과정을 만든 취지를 살릴 수 없다.

탈북민 대학생의 대학 중도 탈락률이 남한 대학생의 2.6배인 것을 개선하기 위해선 느슨하게 운영해온 지원 방식을 철저하게 재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 연수 보내게 영어 잘하는 탈북자를 소개해달라'는 요구가 탈북 학생들의 자립과 자활 의지를 얼마나 꺾는지도 사회에 인식시켜야 한다. 영어 잘하는 극소수의 탈북 학생은 좋은 부모 덕분이다. 이러한 탈북 학생은 아주 적은데 우리 사회에서는 영어 잘하는 탈북 학생을 찾는 문화가 생겨났다.

### 멘토 자격 제도를 도입하라

같은 맥락에서 대안학교와 일반학교에서는 새 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생을 표준으로 삼아버려,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의 의지를 꺾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적 차원에서 이는 기본부터 재점검해야 할 사안이다.

끝으로 '멘토'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정도의 사전교육을 수료한 이에게만 주는 제도화 과정이 필요하다. 뜻만 있고 제대로 멘토 역할을 할 줄 모르는 멘토링의 부작용이 얼마나 큰지 파악해야 한다. 민주평통이 발간한 멘토링 사례집을 읽어보고 학습하는 최소한의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무자격자의 멘토링 때문에 얼마나 많은 탈북민들이 서운해하고 배신감을 갖는지를 알고, 멘토링의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

이런 점들이 보완·개선된다면 이번에 마련한 사회통합형 탈북민 정책은 지향한 목표에 더 다가갈 수 있다. NUAC

문화 속의 통일 준비

# 통일과 문화가 만났을 때 즐거움과 이해가 일어난다

**통일에 대한 공통의 기억, 긍정의 기억을 만들려면 공감각을 활용하라. 통일에 문화라는 외피를 입히는 것이다. 그래서 통일 관련 문화행사가 늘어나고 있다.**

2016년 10월 23일 안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평화통일음악회에서 어린이 합창단이 통일 동요를 발표하고 있다.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한양대 문학박사. 현재 북한학회 부회장, 북한연구학회 사회문화분과위원장, 민주평통 상임위원, 통일준비위원회 사회문화분과 전문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위원회 이사, 민화협 정책위원, 민족화해 편집위원

통일 관련 문화행사가 많아졌다. 통일을 노래하는 '통일음악회'를 비롯해 '통일 염원 대중음악 경연대회', '통일영화 시나리오 공모전', '통일동요 노랫말 공모', '생생토크 통일콘서트', '평화통일음악회', '통일미술대전', '통일박람회', '통일 공감 콘서트', '통일걷기대회', '통일연극제' 등 통일을 타이틀로 해서 음악, 영화, 미술, 연극 등의 다양한 분야가 결합되고 있다.

이 정도 되면 가히 통일문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통일과 문화가 만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화는 공통의 감성을 토대로 한다. 홀로 존재하는 문화는 없다. 통일 운동이 문화의 형태로 진행되는 가장 큰 이유도 공통의 감각 즉 '공감각(共感覺)' 때문이다. 통일에 대한 공통의 기억, 긍정의 기억을 만들기 위해 '문화의 형식'을 빌리는 것이다. 함께 통일을 이야기하고, 함께 통일을 노래하면서 공통의 기억, 공통의 감각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공통의 감각이 필요한 것은 통일 문제가 더 이상 교육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통일 문제에 대한 지식을 전수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감으로 하나 되기 위해 통일과 세대를 이어주는 문화가 동원되는 것이다. 강의 중심의 통일교육은 남북한 문제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지만, 감성적 동원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 문제를 생각하고, 통일에 대한 감성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함께할 수 있는 문화의 외피가 필요하다.

## 젊은이를 잡아라, 즐겁게

통일을 이야기하자고 하지만 사실 통일이 무엇이고, 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사뭇 다르다. 통일의 주체가 돼야 할 남북한 주민이 통일에 대해 갖는 열망이나 관심, 시각도 이전과는 분명 달라졌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여전한 가운데, 통일을 역사적 소임으로 생각했던 세대의식은 많이 약해졌다. 통일과 민족을 연결하는 고리도 많이 느슨해졌다.

2016년 10월 21일 한강 세빛섬에서 열린 '2016 통일문화주간' 개막식에서 통일과 문화에 대해 강연하는 '부활'의 김태원.

미래 통일을 주도할 청소년 세대의 시각은 분단세대, 전후세대와는 차이가 크다. 요즘 청소년은 남북한 문제보다는 글로벌한 이슈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통일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시각이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하다. 그런데 젊은 세대를 통일로 이끌어낼 논리적 자원은 부족하다. '민족적 사명'이라는 숙명론이나 당위론에 근거한 통일론으로는 청소년 세대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통일과 문화를 결합한 통일문화는 가장 현실적으로 통일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통일 후 맞게 될 사회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는 공적 투자이다.**

가 쉽지 않다. 통일에 대한 새로운 가치 부여, 새로운 접근 방법, 새로운 해석이 뒷받침돼야 한다.

문화는 통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전략과 접근에서 매우 유용한 수단이자 접근 방법이다. 함께 노래를 하기도 하고, 연극무대에서는 역할을 통해 전체를 만들어가기도 한다. 통일 노래를 하는 동안, 통일 노래를 알고 있는 동안은 운명공동체가 된다. 노래로 하나가 되는 것은 7080 콘서트나 가요무대와 같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세빛섬에서는 기리카띠('그렇겠지'의 평안도 사투리)를 주제로 한 통일웹툰 전시회도 열렸다.

문화의 가장 큰 장점은 함께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함께 노래하고, 함께 춤을 추고, 함께 무대에 오르면서 공동체임을 확인한다. 지역 통일 운동에서도 이러한 사례는 많다.

2014년 민주평통 김천시협의회가 진행한 '행복한 통일연극제'에서는 예술공동체 삼산이수가 중심이 된 연극 '남남북녀-선녀와 나무꾼'이 무대에 올랐다. 북한이탈주민이 참여한 이 연극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겪는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연극의 주인공은 따로 없었다.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 식으로 연극에 필요한 역할만 있었다. 동등한 위치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을 하면서 하나의 연극을 완성한 것이다. 연극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풀어내고, 연극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 남과 북이 따로 없다, 모두가 참여자

연극만이 아니다. 음악이나 미술, 말하기 같은 예술은 적극적인 동참 활동을 통해 치유의 효과와 통합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공통의 일을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공통의 경험을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성별이나 연령, 직업 등에 상관없이 국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통일지향적 가치관과 생활태도를 견지함으로써 통일문화가 정착된다고 한다면, 통일과 문화가 결합한 통일문화는 통일 공감대 확산의 중요하고도 유용한 방식으로 활용될 것이다.

통일교육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통일 문제에 대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을 완화해 통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중요한 것은 '강제나 보상에 의한 참여를 지양하고,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 통일에 동참하도록 하는 소프트파워를 강화하는 것'이다. 젊은 세대들의 잠재된 역량과 관심을 그들의 미래 문제이기도 한 통일 문제로 이끌어낼 수 있는 소프트파워가 필요하다.

소프트파워는 외적인 동기부여로는 해결할 수 없다.

2016년 10월 22일 파주 도라산역에서 열린 최병관 작가의 'DMZ 사진 전시회' 개막식. 이제는 소프트파워로 통일 에너지를 일으켜야 한다.

통일 문제에 대해 스스로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내적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정서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 비주얼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강의식 교육보다는 현장 체험이나 과제 해결형 교육을 선호하는 새로운 세대에게 비주얼한 접근은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통일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실효적 접근법이다.

문화예술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어주는 힘이 있다. 통일과 문화가 결합된 통일문화는 통일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통일 문제에 대한 정서적 공감대를 넓혀주기 때문이다. 통일문화는 지식이 아닌 감성으로서 통일 문제를 사유하게 만든다. 공감할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인다.

### 통일문화는 미래 갈등 해소하는 투자다

통일과 문화의 만남이 반드시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통일과 문화가 만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내면의 울림, 즉 감동이 있어야 한다. 문화적 이벤트로는 잠시의 흥미를 끌 수는 있어도 결코 지속적인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문화의 본질적 속성인 창의성, 다양성, 성찰, 포용력이 통일 문제와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나가야 한다.

통일과 문화의 만남이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의 의미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인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문화와 통일 문제가 성공적으로 결합한 예로 2005년 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 남북한 화합을 도모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할 목적으로 제작한 통일음반 '사랑-통일 염원 프로젝트' 앨범 제작이 있다.

'사랑-통일 염원 프로젝트' 앨범은 전문기획자의 기획 속에 조수미와 어린이 합창단을 비롯해 이효리, 김건모, 이승철, 세븐, 김범수, 태진아 등 톱가수 40여 팀이 참여해 대중문화 차원의 범국민 캠페인으로 진행했다. 전문가의 기획과 당대 최고 가수들의 참여로 사회적인 파장도 매우 컸다. 문화예술인들이 통일 문제를 수용하고 예술적으로 확산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를 통한 접근은 문화의 가치와 속성에 주목하면서,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통일에 대한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인식을 갖도록 만든다. 이런 점에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참여자의 능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문화와 통일 문제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형성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은 새로운 세대의 눈높이와 감성에 맞는 통일교육으로서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다. 통일과 문화가 결합하는 통일문화는 가장 현실적으로 통일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며, 통일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공적 투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NUAC

최순실 게이트 보도, 북한에는 약일까 독일까

# 촛불시위 보도에 여념 없는 북한, 인민은 '거꾸로' 시위를 배운다!

**북한의 괴벨스 김기남이 좌천된 후 북한 매체들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시위 보도를 제대로 검열하지 않고 내보내고 있다. 언젠가 평양에서도 촛불 시위가 일어날 수 있는 단초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 **변영욱** 동아일보 편집국 사진부 차장 |

한국 드라마나 쇼 프로그램이 실시간으로 북한에 전해진다곤 하지만, 북한 인민들이 국경 밖 세상을 보는 공식적인 루트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텔레비전의 화면뿐이다. 뻔한 기사나 멘트이지만 사람은 '행간'을 읽어낼 수 있으니, 외부 소식을 전할 때는 검열을 해야 한다.

북한 매체의 특파원은 한국에 상주할 수 없어 북한 매체에 실리는 이미지는 한국 것을 무단으로 수집한 것들이다. 이러한 것으로 1970년대까지 북한은 '북한은 천국, 남한은 지옥' 식의 편집을 했다. 북한이 우월한 체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경제 격차가 커진 1980년대부터 이분법적 보도는 사라지고, 한국의 불안한 정국을 보여주는 사진들을 싣기 시작했다. 1986년부터 2000년 2차 남북 정상회담 직전까지는 평균 하루 한 장꼴로 반일·반미 시위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최근 최순실 게이트를 보도하고 있다. 하루 한 장꼴이 아니라 방대한 양의 사진과 영상을 내보내고 있다. 물론 한국의 매체들이 찍은 것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노동신문은 2, 3일에 한 번씩 10장 전후의 사진을 싣고, 방송은 대담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최순실 게이트를 보도한다.

노동신문이 한국 매체에 실린 것을 무단 도용해 2016년 11월 30일자에 실은 광화문 광장의 촛불시위 모습. 한국의 발전된 모습이 발견되지 않도록 주변을 흐릿하게 처리했다.

북한이 무단으로 캡처한 사진과 영상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관련자들이 검찰에 출두하는 사진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대중 집회와 시위 사진만 게재하고 동영상 사용은 최소화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방송은 동영상이 아닌 사진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는 고해상도의 화면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과 함께 불필요한 정보를 차단하려는 의도 때문으로 파악된다. 아무래도 사진에 비해 동영상은 검열이 쉽지 않다.

천지개벽한 조국의 북변천리에 울려퍼지는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
함북도 북부피해지역에 일떠선 새 거리, 새 마을들에서 실림집입사모임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 새집들이한 세대들을 축하방문

2016년 11월 21일자 노동신문. 북한 함경북도 수해 지역의 살림집 복구가 끝났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한국 시민들의 생활수준을 보여주는 모습을 통제하려는 노력은 쉽게 감지된다. 북한 매체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진에서는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의 패션이 눈에 띄지 않는다. 흐릿한 화면을 선택하거나 얼굴과 손에 든 피켓만 잘 보이는 사진을 선택한다.

상대방을 공격하는 보도는 일방적 홍보만큼이나 북한 체제를 떠받치는 선전선동술이다. 도피하던 최순실 씨가 귀국한 10월 30일 이후 북한은 한국 상황 보도와 함께 대남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 정세를 "섭정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진단한다.

그러나 최순실 사건이 있기 전까지 북한 민심도 김정은 정권에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다. 북한 매체들은 함경북도의 수해와 복구 현황을 보여주는 사진을 계속 게재했다. 북한 매체들은 1만1600여 가구의 가옥이 파괴되고 6만89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인재가 겹쳐 피해가 커진 것이 진실인데, 김정은 정권이 자연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 와중에 최순실 게이트가 터져 나왔다. 블랙홀에 빠져들어가는 한국의 모습은 북한 체제에는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소재였을지 모른다. 대남혁명에 유리한 혁명적 분위기가 도래했다는 것을 인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한국의 힘든 정국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체제 유지와 미래에 대한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 한국의 시위 보도하며 역작용은 고려하지 않는가

당이 정해주는 곳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싫어하는 권력자를 조롱하는 팻말을 들고 나온 시민과 도도한 민심의 물결을 허용하고 있는 한국 공권력의 모습을 노동신문 사진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미지는 수신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 지면과 화면으로 보여준 이미지가 북한 사회에 '부작용'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정치 지도자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시민들이 권력에 어떻게 항의하고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지 북한 인민들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북한 매체의 이러한 노출은 선전선동의 귀재인 김기남 시대에서는 보이지 않던 방식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남전략을 일원화하기 위해 지난 6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공식 국가기구로 재편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최근 보도의 검열을 총책임지고 있다면, 첫 작품치곤 빈틈이 커 보인다. NUAC

다시 보는 정유재란

# 한 명의 의병도 일어나지 않은 420년 전의 비극을 잊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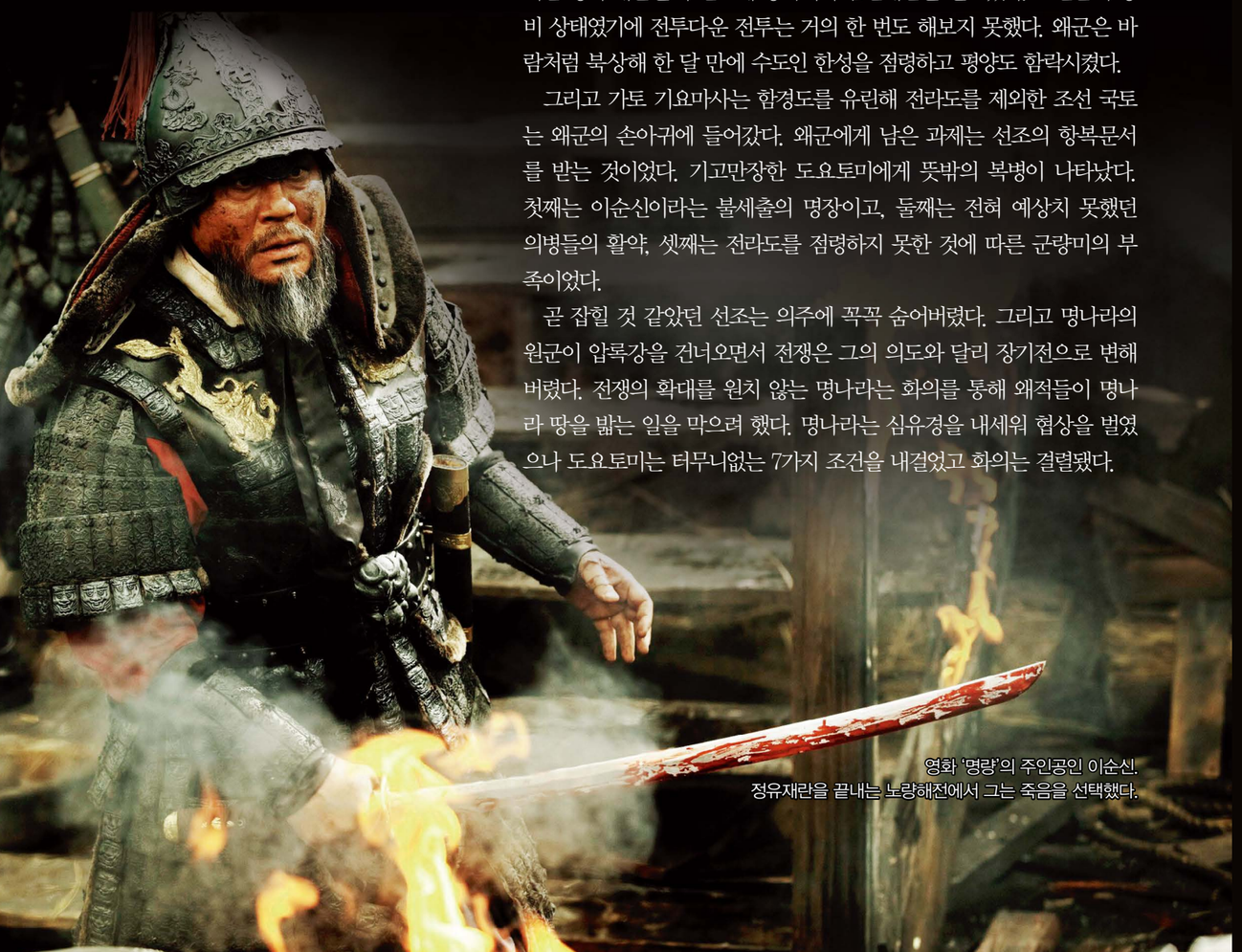
**임진왜란을 당했음에도 당쟁에 빠져 '다시 오는 전쟁'을 외면한 선조를 기억하라. 다시 하는 전쟁에서 왜는 명나라가 아닌 조선 짓밟기에 치중했다.**

정유재란에 이순신이 한 첫 전투가 '명량해전'이다. 그는 지형조건과 조류를 이용해 이길 수 없는 전투를 승리했다.

명나라를 치려고 하니 조선의 길을 빌려달라는 '정명가도(征明假道)'를 내세우고 조선을 침략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2년 4월 14일, 20여만 명의 대군을 부산포에 상륙시켜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조선은 무방비 상태였기에 전투다운 전투는 거의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 왜군은 바람처럼 북상해 한 달 만에 수도인 한성을 점령하고 평양도 함락시켰다.

그리고 가토 기요마사는 함경도를 유린해 전라도를 제외한 조선 국토는 왜군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왜군에게 남은 과제는 선조의 항복문서를 받는 것이었다. 기고만장한 도요토미에게 뜻밖의 복병이 나타났다. 첫째는 이순신이라는 불세출의 명장이고, 둘째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의병들의 활약, 셋째는 전라도를 점령하지 못한 것에 따른 군량미의 부족이었다.

곧 잡힐 것 같았던 선조는 의주에 꼭꼭 숨어버렸다. 그리고 명나라의 원군이 압록강을 건너오면서 전쟁은 그의 의도와 달리 장기전으로 변해버렸다. 전쟁의 확대를 원치 않는 명나라는 화의를 통해 왜적들이 명나라 땅을 밟는 일을 막으려 했다. 명나라는 심유경을 내세워 협상을 벌였으나 도요토미는 터무니없는 7가지 조건을 내걸었고 화의는 결렬됐다.



영화 '명량'의 주인공인 이순신. 정유재란을 끝내는 노량해전에서 그는 죽음을 선택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조·명(朝明)연합군은 평양을 탈환하며 서서히 왜군을 남쪽으로 밀어내기 시작했다. 후퇴하는 왜군에게 일격을 가한 장수는 권율이었다. 권율이 이끈 행주성 전투에서 대패한 왜군은 서둘러 남하해, 부산진 일대에 소규모 부대만 남겨놓고 본대 대부분을 철수시켰다. 이러한 후퇴를 할 때 왜군은 종묘를 불태우는 등 갖가지 만행을 저질렀다.

1596년 조·명 연합군이 부산진을 공격해 남아 있는 왜군을 섬멸하거나 바다로 쫓아냈다면 전쟁은 4년 만에 종결됐을 것이다. 그러나 도요토미의 야망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조선은 '이몽학의 난'을 맞는 등 내우외환에 빠져버렸다. 선조가 영민한 통치자였고, 조정 대신들이 4년의 전쟁에서 깨달은 바가 있었다면 철저한 대비를 했을 것이련만, 국정은 계속 혼란스럽기만 했다.

### 예측 불가능한 '정유년(丁酉年)'이기에

해를 넘긴 1597년 1월, 고니시 유키나가가 1만4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부산진에 상륙함으로써 두 번째 전쟁, 즉 정유재란이 벌어졌다. 2차 전쟁에 동원된 왜군은 12만 명이었다.

그로부터 420년이 흐른 지금, 다시 정유년을 맞고 있다. 전 세계 많은 이들의 예측을 뒤엎고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돼 세계는 그의 행보와 말 한마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를 모두 추방하겠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폐지 혹은 재협상하겠다, 주한미군을 철수하거나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겠다 등 기상천외한 공약을 내걸었음에도 미국인들은 그의 손을 들어주었다. 미국인들은 그것이 자국에 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김호경** 소설 〈명량〉의 작가

경희대 신문방송대학원 졸업. 1997년 제21회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하며 등단. 교보문고에서 일했고, 한양여자대학에서 편집론을 가르쳤다. 장편 〈낯선 천국〉, 〈명량〉, 〈국제시장〉, 〈남자의 아버지〉 〈설렘〉, 〈가슴 설레는 청춘 킬로만자로에 있다〉, 〈프랑스 컬러링여행〉 등을 집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참석하러 가는 길에 뉴욕에 들러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 90분 동안 대화를 나눴다.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주변국 침략에 대해 "침략의 정의는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해 극우의 면모를 보여준 아베였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발 빠른 행동을 한 것이다. 한국은 그러한 아베를 보면서 '부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는 일본이 북한의 위협을 물리치려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주장에 동조해 일본이 핵무장을 한다면 아시아의 평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두 나라만이 대한민국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

해남과 진도 사이의 울돌목(명량)을 향해 새까맣게 몰려오는 왜 선단. 왜는 '살아 있는 조선'인 전라도를 짓밟기 위해 정유재란을 감행했다.

니다. 세계의 공장이 된 중국은 여전히 세계를 먹여 살리면서 위협적인 힘을 넓혀가고 있다. 중국에 상륙해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가 새로운 한류를 만들어 각광을 이어갈지, 아니면 혐한의 된서리를 맞을지 예측할 수가 없다. 한국의 대중문화는 널뛰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 명절에 한국의 백화점을 싹쓸이하다시피 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쳐왔다. 빈부 격차가 극심한 중국에서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은 90%의 소시민층이 아니라 10%에 달하는 백만장자이다. 1억 명에 이르는 그들이 한국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의 시장 경제는 암울해진다.

가장 변수가 많은 나라는 북한이다. 2011년 12월 김정일의 사망으로 권력을 이어받은 김정은은 5년 동안 통치 체제를 굳건히 해왔다. 그의 정적은 사실상 없어졌다고 봐야 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북한 이곳저곳을 시찰하는 그가 가장 마음을 쏟는 곳은 인민군 부대다. 최근 한 달간 9차례나 군 관련 행사에 나섰다는 뉴스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북한 매체들은 날짜를 밝히지 않고 김정은이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 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2016'을 참관해 "침략의 본거지들을 가차 없이 초토화해버리고 남진(南進)하는 인민군 부대들에 진격의 대통로를 열어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러시아는 강력한 푸틴이 풍부한 지하자원을 무기로 버티고 있다. 중동의 거부 나라들은 '누가 더 높은 건물을 짓는가'에 혈안이 돼 있는 듯하다. 한때 아시아의 강국이었던 필리핀 두테르테의 강력한 통치술은 비난을 받기는 해도 필리핀 재건에 큰 힘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대영토를 지닌 브라질,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한 아르헨티나 등 라틴아메리카의 반격도 시작될 것이다. 예측 불가능의 시기 대한민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 당하고도 모르는 조선의 중신들

예측 불가능한 변화는 늘 상존한다. 이는 42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다. 변화에 대비하는 준비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국가와 국민의 운명이 바뀐다. 임진왜란 7년 동안 조선과 명, 왜에서 사망한 사람은 대략 100만 명이 넘는다. 그중 태반이 조선인이었다. 전쟁터였던 조선은 경복궁을 비롯해 수많은 건물과 가옥이 불타고 약탈당했다. 부지기수의 사람들이 왜국으로 끌려갔다. 국토가 황폐화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유재란을 일으키면서 왜군은 1차 전쟁 때의 실책을 만회하기 위해 전라도로 진격해 한때 전주성까지 점령했다. 곡창지대가 적의 손으로 넘어가면서 많은 백성들이 굶주려 죽었다.

정유재란이 발발하기 전 명나라 협상단이 왜국으로 건너갈 때 명나라는 조선 사신이 동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조선의 대신들은 반대했으나, 류성룡만 홀로 "왜국의 정보 수집을 위해서라도 사신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에는 경중과 대소가 있는 법입니다. 국가의 보존과 멸망이 따르는 일인데 어찌 신하 하나를 보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따라 조선 사신도 왜국으로 건너갔다. 1596년 9월 귀국한 그는 왜가 재침략할 것이 확실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그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몇이 되지 않았다. 도원수 권율은 방어를 튼튼히 하고자 했으나 수하 장수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아 마음고생이 컸다. 조정에서는 그러한 장수들을 문책하지 않았기에 군율이 제대로 서지 못했다. 수군을 책임진 이순신만 한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재침략에 대비했다.

"흉적(兇賊)이 그대로 변경에 있으면서 아직도 틈을 노려 침략할 계책을 품고 있으니 참으로 분개스럽습니다. 신이 수군을 뽑아 거느리고 부산 근처로 진주(進駐)하여 적이 오는 길을 차단하고 일사의 결전을 하여 하늘에 사무친 치욕을 씻고자 합니다."

이순신은 정유년 1월 1일 치계를 올려 왜군이 '침략할 계책을 품고 있음'을 알렸으나, 한 달 뒤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류성룡이 그를 구해내기에는 선조의 마음이 너무 옹졸했다. 그리고 수군의 전권을 쥔 원균은 칠천량 해전에서 대패했다. 조선 수군은 전멸하다시피 했다.

도요토미가 임진왜란을 일으킨 명분은 '정명가도'였다. 그러나 정유재란의 목적은 철저히 조선 땅을 짓밟는 것이었다. 조선인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살육했으며, 코를 베어 소금에 절여오도록 했다. 왜군의 무자비한 살육과 약탈, 방화, 강간, 납치는 6년 전쟁의 피해보다 더 컸다.

임진왜란 초기에 조선 땅 곳곳에서 들불처럼 일어났던 의병도 정유재란 시기에는 단 한 명도 일어나지 않았다. 백성의 마음이 떠난 탓이다. 그러함에도 선조는 이순신을 파직시키고 원균을 등용해 바다의 패권을 잃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후에 이순신을 재등용하기는 했지만 그 기간에 죽은 병사들과 백성들의 목숨은 아무도 보상해주지 못했다.

## '可勝惜哉(가승석재)'가 아니기를

역사에 '만약'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함에도 선조가 1596년 철저한 준비를 하고, 뛰어난 장수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사리사욕이 없는 대신들을 기용했더라면 정유재란은 일어났을 것인가? 일찍이 세작(스파이)을 보내 조선 땅을 샅샅이 훑어오도록 한 도요토미였으니, 조선이 치밀한 대책을 세웠다면 2차 침략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의심 많고 용렬했던 선조는 반대의 길을 택했다. 혜안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당쟁에 휘말려들었다. 조선의 선비들은 4년 전에 사망한 정철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느니, 무겁다느니' 하면서 갑론을박을 벌였다. 과거 지향적인 국정을 편 것이다.

"이때에 왜적은 변경에 있고 군사와 백성들은 흩어져서 나랏일은 하나도 믿을 것이 없었다. 그런데도 군사의 지휘를 맡은 신하들이 한마음으로 협력하지 아니하고 이처럼 어긋나 결국 적의 재침(再侵)을 당하였으니, 애석하기 그지없다."

〈선조수정실록〉 31권, 1597(정유)년 1월 23일의 기록이다. 사관은 '애석하기 그지없다'를 '可勝惜哉(가승석재)'라 적었는데 이 단어는 정유년을 앞둔 지금 대한민국에 딱 들어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가승희재(可勝喜哉)'를 바라고 싶다. '기쁘기 그지없다'를 외치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똑같을 것이기 때문이다. NUAC

이순신은 '호남이 없었으면 나라도 없었다'며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라고 했었다. 그가 처절하게 싸우는 동안 선조와 조선 조정은 당쟁에 빠져 있었다(사진 영화 명량의 한 장면).

2016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

# 2017년 통일·대북 정책 방향, 북한 인권 개선 방안 등 건의

**민주평통은 정책 건의를 통해 북한 인권 개선은 통일 준비 차원에서 민족 동질성 회복과 북한체제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필수요소임을 강조했다.**

통일 준비를 위한 국론 결집을 강조한 2016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

유호열
민주평통수석부의장

2016년 12월 7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6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는 2016년 사업을 정리하고 신년 사업을 밝히는 대회였다. 개회사를 한 유호열 수석부의장은 복잡한 국내 정세에 대한 견해부터 밝혔다. "이 모든 과정을 법에 따라, 그리고 국민의 의지와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들면서 해결해나가리라 기대하고 민주평통도 일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 수석부의장은 "지난 1년 민주평통은 험난한 주변 정세를 뚫고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 의장이신 대통령께서 어떤 입장과 정책을 가지셔야 하는지 고민했고, 상임위원회를 통해 대통령께 그 대안을 건의해왔다. 2016년 9월 북한인권법이 발효돼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했다. 민주평통은 국내 38개 시민단체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북한 인권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왔다"고 자평했다.

이어 그는 "어떠한 자문위원보다도 의장이신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안녕을 많이 생각하신다. 이 때문에 대통령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안타깝다. 아쉽지만 통일부 장관께서 오셨으니 대신 보고를 드리고 우리가 또 풀어갈 과제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자"라고 말했다.

권태오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인사에 이어 김안나 기획조정관이 2016년 업무 성과와 2017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김 조정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일어났던 북핵 반대 1인 릴레이 시위가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로도 이어졌던 '풀뿌리 통일운동'의 예로 강조하며 2016년 한 해 민주평통이 주최한 행사를 간략히 정리했다.

2017년 주요 업무계획으로는 대학원생 토론회를 확대하고 '통일 대한민국' 단막극을 제작해 방영하겠다, 온라인 지식 서비스가 늘어난 현실을 반영해 동영상 콘텐츠를 개발하고 청년과 여성 자문위원을 위한 사업을 늘리겠다, 탈북민 멘토링 제도를 정착시켜 탈북민의 자립 지원을 확대하겠다, 평화통일을 위한 국론 결집에 앞장서겠다고 보고했다.

❶ 탈북 학생이 그린 한반도. ❷ 한밤중의 한반도. ❸ 남북의 녹색도 차이를 보여 주는 위성사진.

이어진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강연에서 눈길을 잡아끈 것은 한반도의 녹색 축이 끊어진 위성사진이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

"만성적인 전기 부족을 겪는 북한이 '어둠의 공화국'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캄캄한 밤에 한반도를 찍은 위성사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전역이 '불천지'인데, 북한은 평양에서만 불빛이 나오고 있어 확연한 차이가 난다.

그런데 여름철 한반도 산하를 위성에서 찍어보면 개마고원을 중심으로 한 산악지역을 제외한 북한의 '녹색도'는 대한민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산업화와 함께 산림녹화를 동시에 성공시킨 유일한 국가답게 도시 지역을 빼고는 전국토가 짙은 녹색이다. 반면 휴전선 이북의 한반도는 산악지대를 제외하곤 풀만 덮여 있는지 연초록이다.

북한의 산하가 얼마나 헐벗었는지는 압록강이나 두만강 가를 여행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여름에는 풀이라도 덮여있지만, 가을부터는 그야말로 '붉은 산'이다. 우리는 민족통일과 함께 전기통일, 산림통일도 이뤄야 한다. 통일 후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할 것은 '북한 산 푸르게 푸르게'이다".

그는 탈북 학생이 그린 한반도 그림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보통 만주를 향해 덮쳐가는 호랑이를 그리는데 탈북 학생은 평화의 나팔을 부는 여신으로 한반도를 그렸다. 이 학생은 고향 땅에도 평화의 음악이 퍼져나가길 고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처지에 따라 조국을 보는 감정이 다른 것이다.

그리고 김용호 기획조정분과위원장이 '정책 건의안'을 발표했다. 그의 발표에서 관심을 끈 것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인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북한 인권 개선은 통일준비 차원에서 민족동질성 회복과 북한 체제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필수요소"라며 "북한 인권은 이념과 정파를 초월한 보편적 과제로 인식하는 시대로 진입했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도 통일 준비에 동참시키겠다는 '통일 준비의 지방화'도 눈에 띄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을 시작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통일사업 등을 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김용호
민주평통
기획조정분과위원장

2017년 출범하는 미국 신정부의 바른 대북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많은 공력을 들여 준비해놓은 정교한 통일 준비가 정부가 교체됨에 따라 동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막는 법규의 정비도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 끝으로 "2017년에는 기회보다 도전이 많아질 터니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낙관적 전망보다 부정적 도전의 파급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미국과 북한, 북한과 중국이 다시 접근하는 것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행사는 전자바이올리니스트 마리의 '동백아가씨' 연주와 남북 청년 통일하모니 합창단이 '별'을 부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NUAC

201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협의회장 합동연수

# "세계는 우리를 동정하지 않는다. 심기일전해 우리 길은 우리가 열어야 한다"

**국내정치가 어수선한 가운데 열린 제17기 부의장·협의회장 합동연수에서는 국민을 다시 하나로 묶고 통일을 향한 에너지를 재가동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위기일수록 뭉치고 힘을 내야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7기 부의장·협의회장 합동연수에서 모두연설을 하는 유호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7기 부의장·협의회장 합동연수가 지난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 2일간 경주 코모도 호텔에서 열렸다. '평화통일 기반 구축은 공감, 동행, 결집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된 합동연수에는 전국 각지의 제17기 부의장·협의회장들이 참석해 결속을 다졌다.

유호열 수석부의장은 "이 자리는 그동안 해온 일의 의미를 다시금 점검하면서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과제를 마무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더 굳은 결의를 다지는 자리"라며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무관심하고 통일을 기피하기까지 한다. 민주평통 자문위원들과 지역협의회 차원의 노력이 있었기에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관심을 갖고 좀 더 긍정적이 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2016년 두 차례의 핵실험과 20여 차례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해 도발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도 남북한 문제에 변화를 가져올 큰 변수 중 하나다. 유 수석부의장은 "국제사회는 우리의 상황을 결코 동정 어린 눈으로 보지 않는다. 냉엄한 현실을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민주평통이 일조해야 한다. 할 일을 정말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환영 인사와 경북도정 현안보고가 이뤄졌다. 연단에 오른 김 지사는 "여러분은 모두 지도자다. 어려운 시국에 민주평통이 움직였다는 건 굉장히 새로운 모습으로 각인될 것이다. 여러분이 전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야단칠 건 야단치고, 주장할 건 주장해서 나라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통일이라는 큰 목표를 가진 민주평통에서 역사적인 화합을 주장해야 합니다."

〈인간시장〉, 〈김홍신의 대발해〉 작가인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김홍신 원장의 특별강연도 있었다. 그는 지도자의 덕목으로 '불편을 감수하는 것'을 꼽으며 "여러분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큰 대우를 받지 못하며 봉사활동을 했으나, 통일이 됐을 때 분명히 '내가 적어도 (통일이 되는 데에) 어떤 역할을 했다'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통일 전에 동서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통일 이후 동서갈등이 남북갈등이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통이 합동연수 장소로 경주를 택한 데는 지진 피해 복구에 도움을 주려는 의미와 삼국통일의 기운이 깃든 통일전의 기운을 받아 평화통일을 조금이라도 앞당기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권태오 사무처장은 "비록 지금 의장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흔들림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후에는 김안나 기획조정관의 2016년도 업무 성과 분석 및 2017년 계획 보고가 이어졌다.

## 새해에는 심기일전하자

2016년도 민주평통의 주요 업무 성과는 ▲제17기 지역회의 개최 ▲법정위원회 운영 및 정책건의 ▲지역협의회 정기회의 활성화, '평화통일포럼' 운영, 직능별 정책회의 개최, 통일·북한 관련 전공 대학원생 토론회 개최 등 생활 현장의 풀뿌리 통일 여론 수렴 강화 ▲재외동포 및 국제사회 통일 지지 기반 강화 ▲북 핵실험 규탄 1인 릴레이 시위와 특별강연, 언론 기고 활동 등을 통한 국론 결집 및 국민 통합 활동 추진 ▲효율적인 통일 활동을 위한 인프라 정비 등이었다.

최근 5년간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2014년을 정점으로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일반 국민과 자문위원 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온도차가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개선 과제로는 ▲제17기 자문회의 잔여임기(~2017년 6월 30일) 동안 통일 활동이 국민과 함께 이뤄지도록 선도적 통일 준비 추진 ▲통일·대북정책 추진 동력을 제공할 창의적인 정책 방안 개진 ▲법정회의 참여율 증대 ▲자문회의 대표성 강화 ▲민주평통 위상 강화 등이 꼽혔다.

2017년도 주요 업무로는 ▲제18기 자문회의 구성 및 제18기 출범회의 개최 ▲법정위원회 운영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국민 소통과 통일 공감대 확산 ▲자문위원 통일 역량 강화 ▲해외 통일 지지 기반 확대 ▲탈북민 자립 지원 확대 등이 예정돼 있다.

김홍신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원장, 권태오 민주평통 사무처장, 김관용 경북도지사(왼쪽부터).

분임별 분임토의에서는 2017년도 중점 추진 사업 및 활동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토의 이후 참석자들은 탈북 기타리스트 권설경과 (사)한국무예도보통지십팔기협회 쌍검무팀의 무대와 함께 만찬을 즐겼다.

이튿날인 13일 오전에는 분임별 발표와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합동연수의 마지막 프로그램은 삼국통일의 정신을 계승한 통일전 관람. 참가자들은 이곳에서 북핵 문제 해결과 북한 인권 개선, 국민적 통일 공감대 확산, 젊은 층의 통일 의지 제고를 위한 활동을 적극 펼칠 것을 다짐하며 통일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고자 심기일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NUAC

### 전재석 "유아 때부터 통일교육을"

전재석 경남 사천시협의회장(사진)은 "'2016년 나라사랑 통일한마당 행사'를 통해 1200여 명의 어린이들을 위한 통일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전 협의회장은 "유아 때부터 통일에 대해 배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눈높이에 맞춘 통일 창작 체험과 참여 활동을 마련했는데 호응이 컸다. 초등학교 탈북자 초청 강연, 통일 시민교실 등도 성황리에 진행했다"며 "해마다 청소년 통일교육 요청이 늘고 있다. 2017년에도 휘호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등 직접 참여해 통일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문화행사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6년 12월 15일 일본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열린 '2016 한일 평화통일포럼'. 한일 두 나라 지식인은 북한에 맞서기 위한 한일 공조를 강조했다.

### 한일 평화통일포럼

# 북한은 공통의 적, 한일 공조로 대처해가자

**평화통일포럼에 참석한 양국 지식인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같이하는 양국이 손을 잡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12월 15일 일본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민주평통이 주최하고 민주평통 일본지역회의가 주관한 2016 한일 평화통일포럼이 '북핵 문제의 해법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대주제로 개최됐다.

한일 양국이 북핵 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에 대한 공동 인식을 토대로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이 포럼에는 한국 측 패널로 홍규덕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유성옥 경남발전연구원장, 정승조 전 합참의장, 진창수 세종연구소장, 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참석했다.

일본 측 패널로는 키미야 타다시 도쿄대 교수, 히라이 히사시 교토통신 객원논설위원, 이즈미 하지메 도쿄국제대 국제전략연구소 교수, 소에야 요시히데 게이오대 법학부 교수,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가 참석했다.

권태오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북한의 잇따른 핵과 미사일 도발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 상황은 한일 양국과 전 국제사회,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의 우려를 크게 증폭시켜왔다"고 말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이준규 주일본 대한민국대사는 "우리 정부는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꾸준히 추진해나간다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오늘 포럼을 통해 미래지향적 양국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카시마 아키히사 중의원(전 방위성 부대신)은 "고도성장기를 넘어선 한일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의 제도뿐만 아니라 '선진국으로서의 과제'를 공유할 수 있는 국가"라며 "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양대 리더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인택 고려대 교수(전 통일부 장관)는 기조연설을 통해 "북핵 개발이 9부 능선을 넘어 거의 완성 단계로 진입하고 있고, 김정은 정권이 핵 개발 야욕을 조금도 멈출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정책 이외의 대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

홍규덕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1세션(주제 :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한반도 정세)에서 유성옥 원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전략적 의도는 대내적으로는 김정은 체제를 공고화하고, 남북관계 측면에서는 남북한 간 급격한 국력 격차에 따른 재래식 무기 전쟁에서 대남 열세를 만회하며, 대미관계에서는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고하게 보장받으면서 미국의 신행정부와 핵무기·미사일 개발을 '동결'하는 수준에서 타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키미야 타다시 교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라는 공통의 위협에 직면한 한일은 한일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지만 미·중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나아가 한국 주도의 통일을 향한 필요조건을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조 전 합참의장은 "북한은 핵무기의 숫자를 늘리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북한의 비핵화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히라이 히사시 논설위원은 "미국은 미국을 핵으로 공격하겠다고 공언하는 김정은 정권과 평화협정을 맺을 수 없다"며 "만약 북한이 100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하더라도 그 체제는 보장받지 못할 것이고 외교적 우위도 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2세션(주제 : 한일관계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일본의 대북정책)에서 소에야 요시히데 교수는 "트럼프 외교의 불확실성과 미·중관계, 그리고 북한 정세가 유동적이면서도 당분간은 차분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 한일 양국은 제로에서부터 새로운 협의를 시작하고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개회사를 한 권태오 민주평통 사무처장

진창수 소장은 "일본의 외교정책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견제를 이어가며 그 속에서 독자적 역할을 증대시켜나갈 것"이라고 전망하며 "아베 정권은 중·일 및 한일 간의 안정적 관계 유지를 동북아 외교의 성공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는 "지난 11월 30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자금을 억제하는 데는 일정한 효과가 있겠지만 그 유효성은 미지수"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억제를 위해서는 한·미·일 협력이 핵심이며,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3국의 결속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논설위원은 "북한의 지난 5차 핵실험과 그동안의 경과를 평가해볼 때 북한은 내년 중에 핵탄두가 장착된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다만 핵무기의 실전배치는 노동이나 스커드 미사일을 통해 우선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김 위원은 "북한은 핵무기를 배경으로 재래식 도발을 하면서 우리 사회 내에 동조 세력 확보를 시도할 수도 있으며, 한·미·일 공조체제를 와해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일본을 협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포럼에는 자문위원을 비롯해 현지 동포 및 유학생, 한일관계 관련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참석자들은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일 간에 다양한 협력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NUAC

**최월아** 북유럽협의회장

# "독일 통일의 경험과 지혜를 조국에 쏟고 싶다"

**동유럽 공산국가의 붕괴와 독일 통일의 순간을 경험한 북유럽협의회는 한반도의 통일에 집중한다. 독일 통일은 물론이고 통일 후의 경험도 조국에 전달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기 때문이다.**

"북유럽협의회에는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루마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위스,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등 16개국 105명의 자문위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독일로, 50명의 자문위원이 활동하고 있지요. 독일은 유럽연합(EU)의 중심부이자 평화통일을 이룬 현장입니다. 독일의 자문위원 대부분은 그 통일을 체험했고, 통일 이후의 삶도 살아본 이들입니다.

독일 통일과 한반도의 통일을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은 통일이 주는 장점과 단점을 체득할 수 있는 산 교육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독일 연방의회와 EU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을 강력히 지지해줄 것을 요구한 것은 그 때문이었습니다."

최월아 북유럽협의회장이 민주평통과 인연을 맺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이다. 통일에 대한 열망과 부러움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동포사회에서 크고 작은 활동을 해오던 그에게 민주평통에서 통일 활동을 하는 것은 숙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물론 처음엔 망설였지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걱정도 많았습니다. 16기 북유럽협의회장직을 제안받았을 때도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해보겠다'는 결심을 한 후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의 모자란 부분은 100여 명의 자문위원들이 몇 배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5년간 독일에서 간호사로 일해온 최월아 북유럽협의회장이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국민훈장증을 펼쳐 보이고 있다.

2016년 2월 6일 북유럽협의회는 독일에서 독일의 인권단체와 함께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왼쪽 사진). 최 회장(오른쪽)은 독일에서 집회를 가진 뒤 유럽공동위원회 관계자에게 대북제재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그가 북유럽협의회장직을 맡으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동포사회에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이었다. 동포사회에서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려면 지역협의회 자문위원의 마음부터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서는 자문위원들이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작은 일에서부터 앞장설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을 배려해주는 것이 필요했다.

## EU와 EU 의회의 회신도 받아내

지난 35년간 간호사로 일해오던 그는 얼마 전 현업에서 은퇴하면서 조금은 여유롭게 민주평통의 통일사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북유럽협의회가 힘을 쏟고 있는 중점사업은 차세대 육성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통일 공감대 확산이다. 이는 그가 독일 통일을 지켜보면서 느낀 커다란 교훈과 맞닿아 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독일 국민들의 국민성입니다. 독일은 학생들이 정당 활동을 하는 것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기는 나라입니다. 어릴 때부터 정치를 바닥부터 배우며 안목을 키워나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도덕과 윤리, 인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반은 부족했다고 봅니다. 통일 이후 독일과 같은 무한성장과 발전을 이루려면 형식적인 것 이전에 공감하고 동참하고 실천할 수 있는 통일 의지를 갖춰야 합니다. 유럽에서 자라는 차세대들 중에는 5, 6개국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재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발굴해 리더로 양성하는 것이 기성세대의 중요한 임무일 것입니다."

지난 7월, 국방부와 민주평통이 공동 주관한 세계 장병·청년 통일안보 비전 발표 국내 결선대회에서 북유럽협의회가 우승할 수 있었던 것도 차세대 육성사업의 중요성을 동포사회가 공감해준 덕분이다. 규정상 협의회별로 한 팀만 출전하도록 돼 있었지만, 북유럽협의회는 출전한 팀들의 우수함을 인정받아 세 팀이 결선에 올랐었다.

북유럽협의회는 2016년 2월과 9월, 독일 인권단체들과 함께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독일 연방의회와 유럽공동위원회의 의장과 관계인사들에게도 대북 제재를 촉구하고 중국의 동참을 요구해야 한다는 서신을 발송했다. 그리고 'EU와 EU 의회는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확언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아냈다.

"물론 어려움도 있습니다. 기성세대 자문위원들은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데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 활용에도 능숙하지 않아 통일 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거주지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사업들을 실천하면서 통일의 의지를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빗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모여 거대한 바다를 이루듯이 이러한 우리 활동도 모이고 모이면 커다란 통일의 파도를 일으키리라 믿습니다." NUAC

정유년 나의 바람

# "민족 저력 보여줄 날 오길"

## 통일은 내가 준비한다

김시현
부산 연제구협의회

정유년이 다가왔습니다. 평화통일에 대한 기대를 다시 한 번 걸어봅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신사적으로 대화를 통해 이뤄지는 통일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하려면 누가 우리의 적이고, 누가 우리를 도와주는지부터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 가기 전에만 해도 저는 "우리나라의 적이 어디냐"고 누가 물어보면 "일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북한은 같은 민족이니 일본을 주적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군 생활을 통해 저는 주적이 북한 노동당과 김정은 정권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북한 동포는 껴안고 함께 살아가야 할 겨레이지만, 북한 주민을 압제하고 우리를 향해 도발하는 독재자와 독재 정권의 참여자들은 북한 동포와 우리의 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안 것입니다. 갈등을 줄이기 위해 김정은 정권이 자멸해 통일되는 상황을 기대해봅니다. 저와 같이 그릇된 인식을 가졌던 젊은이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안보의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국정교과서를 꼭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통일을 위해, 나라를 위해, 국민들을 위해 제대로 한 일이 없다는 게 후회스럽습니다. 한편으로는 통일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주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통일에 대한 대비를 잘하고 있는지 늘 궁금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통일 준비를 하고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통일 준비는 남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새해를 맞은 저의 가장 큰 깨달음이자 정유년 저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 캐나다 참전용사에게 감사

홍솔비
토론토협의회

지난해 세계의 관심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 여부에 집중되었다. 설마설마 하다가 그것이 이뤄지자 충격에 휩싸였다. 두 사건 모두 진행 중일 때는 극명하게 찬반이 갈렸다. 대한민국의 통일도 설마설마 하는 사람이 많은 와중에 이뤄질 것으로 본다.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당선이 준비되고 있을 때 반대파들은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두 사건은 반기지 않은 반대파들의 시위 속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더욱 '역사적'인 것이다. 그처럼 휴전 상태에 있는 대한민국도 예상을 깨고 통일을 이루는 충격을 세계에 던져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6년 민주평통 토론토협의회가 진행한 인터뷰 사업을 통해 30명의 캐나다 참전용사들을 만나 6·25전쟁에 얽힌 얘기를 들었다.

참전용사들은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패기만 갖고 한국전에 참전하겠다며 가족을 떠났다. 이 분들의 희생으로 한국은 경제 발전을 해 선진국이 되었다. 최근 초청을 받아 한국을 방문한 용사들은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은 한국 정부를 고마워했다. 귀빈처럼 대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다.

지금은 통일에 관한 젊은 층의 관심도가 낮다. 하지만 통일 과제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보편화돼 통일 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일에 동참할 것으로 본다. 전쟁의 고통을 겪고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준 민족의 저력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날이 오길 희망한다.

## 나 돌아가리라, 안주군 북송리로

최기석
서울 강북구협의회

어느새 내 나이 92세. 모든 걸 졸업한다는 졸수를 넘어가니 사단칠정도 퇴색돼가는 느낌이다. 건강 욕심만 꿈틀거릴 뿐이다. 또 하나가 있다면 66년 전 떠나온 고향에 죽기 전에 가고 싶다는 욕망이 살아 있다.

내 고향은 평안남도 안주군 북송리. 부모형제를 뒤로하고 강제 징집돼 전쟁의 포화를 뚫고 우여곡절 끝에 남한 땅에 둥지를 틀었다. 새로운 가문을 만들고 번영된 대한민국에서 잘살고 있건만 마음 깊은 곳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사라지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떨어질수록 더욱 강하게 가슴을 파고든다.

언제부터인가 새해 차례를 지내는 가족들에게 고향에 가고픈 바람을 덕담으로 건네게 됐다. 우리 고향은 서울이 아니라 평안남도 안주라고 되새겨주며….

통일은 어려운 듯하지만 김정은의 폭압과 공포정치는 역으로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준다.

3년 전 7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 고향 안주에 홍수가 나서 주민의 80%가 이재민이 되었다는 소식이 날아왔다. 안주군민회 회원들은 성금을 모아 민간 대북 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를 찾아가 안주시에 전달해달라고 했다.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으면 민간단체를 찾아 전달을 부탁했겠는가. 현금은 어렵고 국수로 전달할 방법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래서 국수로 바꿔 보냈더니 9월 국수가 안주시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고향 사람들이 먹을 생각을 하니 내 배도 부른 것 같았다.

나는 꼭 가볼 것이다. 살아생전에 내 가족 모두를 데리고 조상들이 살던 곳, 내가 자라던 곳을 보여주고 가르쳐줄 것이다. 귀로만 듣던 곳을 보여주고 만져보게 하고 싶단 말이다. 간절히 생각하고 원하고 행동해야 이룰 수 있다. 66년을 지켜온 내 소망이 이뤄질 것을 확신하며 오늘도 북쪽 하늘을 향해 명상에 잠긴다.

## 디지털 시대 이끌 리더십 고대

김용호
민주평통 기획조정위원장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아 새해에는 우리나라가 새로운 문명 건설에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빅데이터, 가상현실, 드론 등이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고 있다. 인류는 산업혁명을 통해 열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바꾸는 기술을 터득한 결과 증기선, 기차, 자동차 등을 생산하는 공업화를 기반으로 산업문명을 건설했다. 그리고 지금 사이버 세계에서 현실세계의 인간 활동이 가능해진 디지털 문명을 열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디지털 문명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정치·경제체제를 고안해내야 한다. 장기 과제로 선정해놓고 답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려면 당면한 단기 과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당면 과제는 남북관계를 비롯해 무수히 많다.

올해는 국내정치 상황이 매우 유동적인 가운데 대선 정국이 전개될 것이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방국인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신행정부가 등장한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미국의 신행정부를 선제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핵·미사일 실험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더욱 강화돼왔기에 제재의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제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올지 궁금하다. 미·중 관계가 악화된다면 대북제재를 위한 미·중 협력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전시작전권 조기 이양 등을 요구할 경우 한미관계는 상당히 어려워진다. 이러한 것에 대비하는 새해를 열어야 한다. 디지털 문명의 도래라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 NUAC

**서울지역회의**

## 2016 하반기 서울평화통일포럼 개최

서울지역회의(부의장 손경식)는 12월 1일 세종대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서울포럼 회원과 자문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2016년 하반기 서울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변진홍 서울포럼 연구위원장의 사회로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정책 전망(차두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북핵 문제와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김태우 건양대학교 교수) ▲트럼프 시대 북한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북한 인권정책 및 대북정책 추진 방향(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4개 주제로 진행됐다.

**충남 천안시협의회**

## 탈북민 정착 지원 '하나 되기 발걸음' 행사

충남 천안시협의회(회장 유병수)는 12월 2일 천안컨벤션센터에서 구본영 천안시장, 전종한 천안시의회 의장, 자문위원, 탈북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하나 되기 발걸음' 행사를 열었다.

천안 서북경찰서와 동남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진행한 이번 행사에는 탈북민으로 구성된 충남하나센터 소속 '새희망 봉사단'의 식전 공연과 탈북민들의 노래와 춤 등 장기자랑이 곁들여져 참석자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행사는 탈북민을 위로하고 지역주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천안시협의회는 올해로 9회째 진행하고 있다.

## 일년 밥상 책임질 김장 나눔 행사 열려

우리 가족들의 한 해 밥상을 책임질 겨울철 김장 소식이 전국에서 들려왔다.

**서울 금천구협의회**(회장 박준식)는 12월 2일 자문위원들과 함께 지역에 거주하는 탈북민과 다문화가정 등에 전달할 김장 김치 담그기 행사를 가졌다.

**서울 구로구협의회**(회장 이계명)는 12월 3일 동구로새마을금고에서 자문위원과 탈북민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 담그기'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함께 김치 양념 만들기부터 포장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서로 친목을 다졌으며, 고향에 갈 수 없는 탈북민의 마음을 위로하며 훈훈한 온정을 나눴다.

**경기 화성시협의회**(회장 홍진환)는 12월 5일 서부경찰서를 통해 관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김장 김치를 배달했다(사진).

**대전 서구협의회**(회장 김보영)도 12월 6일 탈북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김장 담그기 및 따뜻한 한 끼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탈북민과 자문위원 60여 명이 참가해 함께 김장을 담갔으며, 김장 후 따뜻한 식사를 함께하는 자리에서는 맛있는 수육과 갓 버무린 겉절이, 시원한 국물이 일품인 김치국과 달달한 귤까지 더해지며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경북 구미시협의회**(회장 김철호)도 12월 4일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탈북민과 자문위원 120여 명이 함께 김장을 담그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경남 양산시협회의**(회장 전재근)도 12월 6일 양산시 11개 단체와 함께 하북안심요양원에서 양산시에 거주하는 탈북민 120가구에 김장 김치를 전달했다.

## 민주평통 훈·포장 수여식 열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12월 22일 오후 2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에 기여한 유공 자문위원 45명에게 국민훈장과 국민포장을 수여했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모란장 7명, 동백장 9명, 목련장 12명, 석류장 14명, 국민포장 3명 등 총 45명이 훈·포장을 받았다. 수상 유공 자문위원은 다음과 같다.

△ **국민훈장 모란장(7명)**

김수곤(서울 서초구 자문위원), 김승수(대전 유성구협의회장), 박해진(경기부의장), 김점순(경기 의정부시협의회장), 김승이(전남 진도군 자문위원), 구본국(경북 군위군협의회장), 임태랑(로스앤젤레스협의회장)

△ **국민훈장 동백장(9명)**

양우진(서울 중구협의회장), 최복수(서울 광진구협의회장), 김용호(운영위원), 김세현(부산 기장군협의회장) 이광우(대구 북구협의회장), 정영자(울산 남구 자문위원), 유오복(경기 안산시협의회장), 박양흠(상임위원), 김정길(경남 거제시협의회장)

△ **국민훈장 목련장(12명)**

오광수(서울 동대문구협의회장), 신해두(서울 노원구협의회장), 이동수(상임위원), 최재현(인천 계양구협의회장), 서병연(광주 남구협의회장), 손재필(경기 수원시협의회장), 오치인(충남 보령시협의회장), 김병석(전북 남원시협의회장), 김정훈(전남 무안군협의회장), 지수옥(경북 포항시협의회 지회장), 오병문(중미·카리브협의회장), 황재길(아프리카협의회장)

△ **국민훈장 석류장(14명)**

오금남(서울 종로구협의회 지회장), 최재무(서울 구로구 자문위원), 김판수(상임위원), 류채형(부산 서구협의회장), 정찬주(인천 남동구협의회장), 성낙헌(경기 시흥시협의회장), 임영헌(경기 여주시협의회장), 김화묵(강원 강릉시협의회장), 김순자(강원 정선군 자문위원), 홍순철(충북지역회의 간사), 허개열(경북 경산시협의회장), 신종철(경남 산청군협의회장), 권석대(오렌지샌디에고협의회장), 주양중(호주협의회 자문위원)

△ **국민포장(3명)**

김구회(상임위원), 이동현(대구 달서구협의회 간사), 노현규(제주 서귀포시협의회 지회장)

**전북 전주시협의회**

## 나에게 통일이란? "바로 안경"

전북 전주시협의회(회장 나춘균)는 고3 학생을 대상으로 12월 2일 전일고 시청각실에서 '탈북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 이야기'를 개최했다.

청소년의 올바른 북한 실상 이해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건전한 통일 미래세대를 육성하고자 추진된 이번 행사는 한겨레중고등학교 최기대 선생님과 김효심 학생이 참석해 북한 체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북한 청소년의 현실과 남한에서 겪은 차이를 이야기하며 서로 다르지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효심 학생의 "나에게 통일이란?" 물음에 "안경"이라고 답한 전일고 친구는 "안경을 벗었을 때는 보이지 않아 잘 몰랐는데,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안경'을 쓰고 보니 통일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 중랑구협의회**

## 통일 맞이 멘티 가족 화합 한마당

서울 중랑구협의회(회장 김상희)는 12월 4일 더팰리스 뷔페에서 자문위원과 멘티 가족, 대행기관 관계자 등 1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멘티 가족 화합 한마당을 개

최했다.

가수 김선미 씨의 사회로 진행된 멘티 가족 장기자랑에서는 멘티와 가족들이 함께 모여 노래와 댄스, 악기 연주, 만담 등 17팀의 장기로 꾸며졌으며, 수상자들에게는 온누리상품권 등 다양한 상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멘토, 멘티가 함께 통일을 향한 마음을 담은 통일의 노래를 부르며 성황리에 종료됐다.

**경북 구미시협의회**

## 통일시대 시민교실 열어

경북 구미시협의회(회장 김철호)는 12월 2일 형곡새마을금고 강당에서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개최했다.

첫 강좌에서 '북한 실상과 우리들의 행복'이란 주제로 강연한 권설경 탈북 강사는 북한에서의 생활과 탈북 경위, 그리고 남한 정착기를 들려주며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이어진 두 번째 강좌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석 박사가 '최근 북한 정세와 우리의 통일정책'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이 박사는 "분단의 시간이 길어지면 북한 주민들도 남한과의 통일을 원할지는 미지수"라며 "우리와의 통일보다는 중국과의 통합에 친근함을 느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기 의정부시협의회**

## 경기북부하나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경기 의정부시협의회(회장 김점순)는 12월 5일 경기북부하나센터에서 탈북민, 경기북부하나센터장, 자문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북부하나센터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하나원 퇴소 이후 초기 탈북 가정의 남한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다양한 생활 정보를 제공해 탈북민들이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향후에도 의정부시협의회는 초기 탈북 가정을 위한 주택 청소 및 사회·문화 체험 활동 지원을 통해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남북한 지역주민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경기 용인시협의회**

## '통일 대한민국을 꿈꾸다' 공연 성황

경기 용인시협의회(회장 황신철)는 12월 8일 용인여성회관 큰어울마당에서 자문위원과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 뮤지컬의 막을 올렸다.

뮤지컬은 1막 '통일 대한민국을 꿈꾸다'를 주제로 한 통일 뮤지컬과 2막 뮤지컬 갈라쇼로 진행됐다. 1막은 '무궁화 행진곡', '귀국선', '전선야곡', '인생수첩' 등 10곡의 장엄하면서도 심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곡들로 구성됐고, 2막은 뮤지컬 '명성황후'의 대표곡 '나 가거든'과 뮤지컬 '영웅'의 안중근 '장부가' 등 시민들에게 익숙한 곡들과 함께 마지막 '아리랑' 전체 합창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꿈꾸는 시간으로 마무리됐다.

참석한 시민들은 "통일 뮤지컬이라고 해서 다소 무겁고 지루하지는 않을까 생각했는데 웃음과 감동이 함께하는 이야기 전개로 가슴이 뭉클했다"고 관람 소감을 말했다.

**강원지역회의**

## '탈북민들의 통일 이야기' 진행

강원지역회의(부의장 박용성) 청년위원회(위원장 전제원)는 12월 2일부터 이틀간 청년위원, 통일동아리 회원, 멘티·멘티 가족과 또래친구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창 켄싱턴플로라호텔에서 '청년위원, 대학생이 바라본 탈북민들의 통일 이야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청년위원, 대학생, 북한이탈주민들의 통일 이야기를 통해 상호 소통과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멘토·멘티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멘토·멘티 지역 간 활동 현황 발표와 한반도의 정세 강연, 그리고 멘토·멘티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면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을 발표하며 서로 공감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충남 금산군협의회**

## 부모와 함께하는 청소년 통일 캠프

충남 금산군협의회(회장 태진수)는 12월 2, 3일 이틀간 진산자연휴양림에서 '2016 부모와 함께하는 통일 캠프'를 개최했다.

캠프에서는 정현도 간사의 진행으로 오영미(서강대), 양유성(국민대) 탈북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통일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캠프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다양한 질문을 통해 북한의 실상과 탈북 과정 등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그 외에도 박화선 강사의 학교폭력 예방 특강, 김남주 강사의 전통무예 체험 및 호신술 특강 등이 이어졌으며 2일 차에는 금산 육백고지 전승탑에 들러 참배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가족과 함께해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평소 무관심했던 통일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시협의회**

## '탈북민 후원의 밤' 개최

경기 수원시협의회(회장 손재필)는 12월 2일 자문위

원과 탈북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이엔드호텔에서 '탈북민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1부에서는 안찬일 박사의 '김정은의 단번도약 전략과 핵전쟁 시나리오'를 주제로 한 특강이 있었고, 2부에서는 평소 봉사활동을 통한 이웃 사랑 실천과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선 유공자 표창이 있었다.

유공자 표창에 이어 탈북민 자녀 20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자문위원들이 기증한 쌀, 자전거 등 다양한 경품들을 탈북민들에게 전달했으며, '우리의 소원' 대합창으로 행사는 성황리에 끝났다.

### 광주 서구협의회
## 남북한 전통음식문화교류회 열어

광주 서구협의회(회장 오세칠)는 12월 2일 자문위원과 탈북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도전통음식연구소에서 '제2회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남북한 전통음식문화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은경 남도전통음식연구소장의 남한 음식(바람떡) 시연과 탈북민의 북한 음식(두부밥 생태탕) 시연, 참석자들의 체험, '함께하는 통일 준비'를 주제로 한 좌담회와 '통일 한 줄 생각 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광주 서구협의회는 관내 정착한 탈북민과 지역민 간의 이질감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통음식문화 교류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 경북 예천군협의회
## "통일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 흐름"

경북 예천군협의회(회장 강무한)는 12월 9일 예천 청소년수련관에서 자문위원,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시민교실에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제노 연구위원이 '통일사회와 습(習)의 통일문화'를 주제로 한 특강이 있었다. 안 박사는 "통일이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해결 방안은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에 있다"며 "우리에겐 좀 더 근원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튼튼한 안보는 우리의 행복'을 주제로 강의를 한 이순실 탈북 강사는 북한 학생들의 학교생활, 북한의 경제 상황, 북한 주민의 실생활, 탈북 경로 및 경험담을 생생하게 설명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시민교실을 준비한 김무한 협의회장은 "북한 실상을 좀 더 생생하게 이해하고 통일 문제에 대해 소통함으로써 통일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경남 사천시협의회
## 나라 사랑 통일 한마당 펼쳐

경남 사천시협의회(회장 전재석)는 12월 8일 삼천포체육관에서 관내 유아교육기관 어린이와 교사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나라 사랑 통일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통일 그림 그리기, 교사와 어린이들이 함께하는 공굴리기, 통일 대박 박 터뜨리기, 어린이 통일골든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또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통일 창작 체험 및 참여를 통해 통일에 대한 어린이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었으며, 나라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보는 계기가 됐다.

전재석 협의회장은 "이번 행사가 어린이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현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통일 문제에 다가가고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 경남 양산시협의회
## 탈북민과 송년의 밤 행사 가져

경남 양산시협의회(회장 전재근)는 12월 2일 더미션 뷔페에서 탈북민 140여 명과 함께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가수의 흥겨운 공연과 탈북민이 직접 참여한 장기자랑 시간이 펼쳐져 참석한 사람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전재근 협의회장은 "탈북민들이 성공적인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회활동과 문화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행사는 양산시청과 공동 주최하고 양산상공회의소에서 후원했으며, 탈북민에게 푸짐한 위문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 충남 아산시협의회
## 청소년 역사·통일 퀴즈대회 개최

충남 아산시협의회(회장 김세영)는 12월 9일 아산시민체육관에서 '제8회 역사·통일 퀴즈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아산교육지원청 김진표 교육장, 아산경찰서 김종민 서장을 비롯해 자문위원, 관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지도교사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역사·통일 퀴즈대회는 남북한 문제, 각종 용어, 사회·정치·문화·상식 등을 주관식과 ○× 문제 풀이로 1차 예선과 2차 본선으로 진행됐으며, 각 학교에서 응원을 나온 학생들은 모교의 우승을 위해 열띤 응원전을 펼쳤다.

역사·통일 퀴즈대회는 아산고 등 4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통일의 염원을 다지고자 2009년부터 계속 이어오고 있다.

경기 시흥시협의회

## “행복하세요!” 탈북민 합동결혼식

경기 시흥시협의회(회장 성낙헌)는 12월 9일 시흥비즈니스센터 컨벤션홀에서 자문위원과 내빈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쌍의 북한이탈주민 합동결혼식을 열었다.

성낙헌 회장은 주례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고 남과 북이 하나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시흥시협의회가 마련한 뜻깊은 행사”라며 “오늘은 복 받은 길일로 5쌍의 합동결혼식을 축복 속에 치르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날까지 곁에서 열심히 돕겠다”고 말했다.

시흥시협의회는 시흥시 관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생활의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합동결혼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10쌍이 결혼식을 올렸다.

서울 영등포구협의회

## ‘청년, 통일을 디자인하다’ 개최

서울 영등포구협의회(회장 김원국)는 12월 9일 서울시립 문래청소년수련관 대공연장에서 자문위원과 지역주민 등을 초청해 ‘청년, 통일을 디자인하다 – 남북 청년들이 꿈꾸는 통일의 실질적 로드맵, 남북 청년 통일 준비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에 개최된 토크콘서트는 박현우 청년분과 간사(통일의 별 대표)의 진행으로 1부에서는 김인성 북한인권정보센터 국장의 ‘북한 인권 실태와 청년들의 통일 준비’를 주제로 강연이 있었다.

2부에서는 지난 10월 남북하나재단 주최로 열린 ‘남북 대학생 통일 준비 PT 경진대회’에서 국회의장상, 통일부 장관상을 수상한 박우진(연세대 신학과), 오광명(고려대 중어중문학과) 학생의 발표가 있었다. 박우진 학생은 ‘남북한 사회적 통합을 위한 미디어 콘텐츠 기획’을 주제로, 오광명 학생은 ‘우리나라를 그려주세요’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후 김성렬(연세대 정치학 석사), 박철준(서강대 정치외교학과) 학생도 패널로 참여해 통일을 위한 청년의 역할, 미래 통일의 모습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경북 군위군협의회

## 초등학생 눈높이 통일교실 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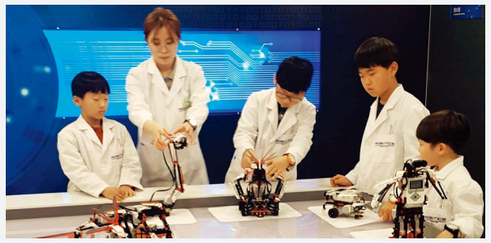
경북 군위군협의회(회장 구본국)는 12월 12일 군위초등학교 도서실에서 군위초등학생 4~6학년, 자문위원, 교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초등학생 눈높이 통일교실’을 개최했다.

‘북한 실상 및 우리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유현주 탈북 강사는 오늘의 풍요로움과 자유로움에 감사하기보다는 자신들을 대한민국 땅에 낳아준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대한민국 국민임에 감사하면서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통일교실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재미있는 이야기와 통일 퀴즈 이벤트, 통일 4행시를 직접 진행하며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해 학생들이 북한의 실정과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다.

부산 사하구협의회

## 탈북 청소년과 직업체험 가져



부산 사하구협의회(회장 배백식)는 12월 10일 부산 해운대구 소재 어린이 직업체험 전문시설 키자니아에서 자문위원과 관내 탈북 어린이 30여 명이 함께 남한 직업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한 어린이들은 그들이 꿈꾸는 미래의 직업을 현실과 똑같은 환경에서 경험해보며 어른이 된 후의 사회를 미리 체험해볼 수 있었다.

일하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저축하는 과정을 통해 북한과는 다른 한국 사회의 경제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대구지역회의

## 대구지역 자문위원 연수 개최

대구지역회의(부의장 박규하)는 12월 9일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대구지역 자문위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대구지역 자문위원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김흥규 아주대 교수의 ‘동북아 정세 변화 전망과 한국 외교의 방향’,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의 ‘북핵 위협에 대한 우리의 정책 방향’ 강연으로 진행됐다. 또한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북한이탈주민과의 통일 토크콘서트는 북한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인천 서구협의회

## 탈북민 멘토링 평가회 가져

인천 서구협의회(회장 유정학)와 세일고등학교(교장 이병희)는 12월 6일 서구청 지하 대회의실에서 자문위원, 세일고 멘토 학생 및 지도교사, 탈북민 자녀 멘티 및 학부모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탈북민 자녀 지원 ‘함께해요! 어울림 멘토링’의 활동 평가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15개월간의 멘토링 활동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발표 및 활동 영상 상영, 참여소감 발표, 세일고 학생들이 12월 2일 바자회를 통해 만든 수익금으로 준비한 선물 증정 순으로 진행됐다.

활동 보고 및 소감 발표를 한 김우진·김정주(세일고 2) 학생은 "멘토링 활동을 통해 탈북민과 아이들을 돕고, 우리 스스로도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협의회가 추진한 '함께해요! 어울림 멘토링'은 탈북민 자녀의 사회생활 및 학습지도를 지원하고자 지난해부터 15개월간 진행됐으며, 가정방문 학습지도와 봉사, 문화 탐방, 자연과학 실험 등 다양한 창의 체험 활동을 멘토·멘티가 함께한 활동이다.

**경기 부천시협의회**

## 시민과 소통·화합 다지며 안보 현장 견학

경기 부천시협의회(회장 김기명)는 12월 14일 국가안보 의식 고취를 위해 부천시민 및 자문위원 110명과 함께 안보 현장 견학을 다녀왔다.

이날 안보 견학에서 자문위원과 부천시민들은 연천지역 전곡 선사박물관과 태풍전망대, 제3땅굴 등을 견학하며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기명 부천시협의회장은 "이번 안보 견학을 통해 국가 안보 의식을 더욱 강화하고 상호 단합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어 지역사회 안보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근기(近畿)협의회**

## 통일토크콘서트 및 글짓기대회 시상식 열어

일본 근기(近畿)협의회(회장 권오일)는 12월 3일 건

국학교 강당에서 조재철 오사카부총영사, 박도병 민단 오사카지방본부 의장, 자문위원, 건국학교 중고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토크콘서트 및 통일글짓기 대회 시상식을 가졌다.

행사는 먼저 가야금 연주자 박순아씨의 가야금 연주와 '내가 생각하는 통일은'이라는 주제로 한 통일토크콘서트가 진행되었다. 이어진 글짓기 대회 시상식에서 이가영(건국학교 2)학생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주제로 대상을 차지하였다.

한편, 이번 통일글짓기 대회는 재일 동포 중고생을 대상으로 추진되었으며 총 360편이 응모되었다.

**하와이협의회**

## 연말 한국 양로원 방문, 훈훈한 나눔 실천

하와이협의회(회장 김동균)는 12월 13일 호놀룰루 릴리하에 위치한 한국양로원을 방문해 '민주평통인의 밤' 행사 때 모금한 후원금을 전달하고, 양로원에서 지내시는 어르신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양로원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이민 초창기에 하와이에 건너와 결혼도 하지 못한 채 평생 수탕수수밭에서 일하다 은퇴해 여생을 보내는 많은 이민 선조들을 위해 세운 양로원으로 하와이 이민 역사에서 의미 있는 곳이다.

**호주협의회**

## 북한 인권주간 행사 열어

호주협의회(회장 이숙진)는 12월 4일 시드니에 위치한 오스트레일리안 테크놀로지 파크에서 초청인사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인권주간' 개막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개막 행사는 세계 최초의 '모션 그래픽 장구 악보'인 '인식적 사운드 이미지'를 장착한 호주 한인 동포 1.5세 작곡가 겸 연주자 김 데보라 씨의 공연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서 이날 사회를 맡은 주한슬 씨가 호주협의회의 활동을 소개하고 이번 행사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며 행사는 시작됐다.

이숙진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이나 남북통일의 도화선은 북한의 인권 개선이고, 북한 인권 개선 문제는 주변 국가들이 주도해야 하며, 주변 국가의 중심은 바로 호주"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 인권주간 개막식에서 소개되는 영화 '더 월'을 통해 호주 현지인과 동포 2세대들이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마음 깊이 공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년 1월 해외 개봉을 앞둔 아일랜드 골웨이국제영화제 인권영화상 수상작 '더 월'이 호주 북한 인권주간 행사에 상영됐고, 이 영화의 제작자인 데이비드 킨셀라 감독은 이 영화에 대해 "개인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유를 다룬 영화"라고 소개했다.

북한 인권주간 행사는 북한 인권 영화 상영 및 강연회를 통해 12월 10일까지 호주 4개 도시(시드니, 퍼스, 멜버른, 브리즈번)에서 개최됐다.

한편 이번 행사는 호주 정부의 북한인권법 채택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호주협의회가 주최했으며, 주호주 한국대사관과 주시드니 총영사관이 후원했다.

**키르기스스탄지회**

## 2016년 찾아가는 통일 강연회

키르기스스탄지회(지회장 정지성)는 12월 7일 유로파호텔에서 자문위원, 교민, 고려인, 청소년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인권 현황과 최근 북한 실상'을 주제로 통일 강연회를 개최했다.

강연을 한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몇 달 전 발생한 홍수로 많은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사용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을 등한시하는 북한 체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며, 북한 주민들이 인권을 누리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며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경북 구미시협의회

# “98명의 자문위원이 364명의 북한이탈주민과 하나 된다”

경북도에서 가장 많은 북한이탈주민을 안고 있는 구미시는 함께하는 체험을 통해 그들을 구미 시민으로 녹여내고 있다. ‘우리가 남이가’ 정신으로 마음에 의한 통일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관내 탈북민과 함께 제주도를 찾아간 ‘북한이탈주민 우리 역사 알기 문화체험’ 행사(왼쪽 사진)에서 삼별초 유적지를 찾았다.

구미는 경상북도에서 가장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는 도시다. 민주평통 자문위원 입장에서는 그만큼 해야 할 일도, 하고 싶은 일도 많은 지역이다. 2016년 11월 현재 구미시에 머물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364명. 2016년 구미시협의회는 이들과 ‘북한이탈주민 우리 역사 바로 알기 문화체험’, ‘북한이탈주민 망향제’, ‘북한이탈주민 안보 현장 견학’, ‘북한이탈주민 김장 담그기’ 등을 함께했다.

‘북한이탈주민 우리 역사 바로 알기 문화체험’에는 35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제주도를 방문해 분단의 아픔을 달랬다. 우리에게 금강산, 백두산이 그러하듯이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제주도가 꿈에도 그리던 통일의 상징이다. 살아 있는 역사의 현장이다. ‘북한이탈주민 망향제’는 구미시협의회가 북한이탈주민과 매년 꾸준히 해온 행사다. 명절이면 더욱 고향이 그립고 가슴이 절절해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날이기도 하다.

강원 고성군의 통일전망대로 떠난 ‘북한이탈주민 안보 현장 견학’에는 42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참가했다. 이는 가까운 곳에서 고향 땅을 보고 싶다는 북한이탈주민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겨울이면 추위와 먹을거리 걱정에 시름을 더해가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 열리는 ‘북한이탈주민 김장 담그기’도 매년 해온 일이다. 모두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들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노력들이다.

구미시협의회의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실질적인 자립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이 자문위원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 구미시협의회 자문위원들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협의회 차원에서 이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과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올바르게 정착했을 때 가능한 일이겠지요.”

김철호 구미시협의회장의 말이다. 구미시협의회가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들과 활발한 스킨십을 이어나갈 수 있는 데는 자문위원들의 역할이 컸다. 20대부터 80대까지의 고른 연령 분포는 세대 차이라는 벽을 만들 수도 있었지만,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되었다. 자기 분야에서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은 통일 활동에서도 리더의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기 때문이다.

## 주부 역사·통일골든벨 열기도 대단

“구미시협의회의 첫 번째 자랑거리는 화합입니다. 토론은 치열하지만 합의된 결과에 대해서는 일사불란하게 실행에 옮기니 불협화음이 생길 틈이 없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 자문위원님들이 하나 된 마음으로 도와주셔서 모든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올 수 있었습니다.”

13기부터 민주평통과 인연을 맺어온 김철호 구미시협의회장은 17기에서 협의회장직을 맡으면서 새삼 지역 자문위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한다.

여성지도자 통일안보교육.

올해 시도한 ‘주부 역사·통일골든벨’도 자문위원들의 협력을 통해 이뤄낸 성과다. 지역 내 200여 명의 주부들이 참가한 이 행사의 열기는 ‘청소년 역사·통일골든벨’ 못지않게 뜨거웠다. 고등학생 수준의 쉽지 않은 문제들이 출제됐으나 주부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왔기에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그러나 과제도 있다. 경북에서도 가장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살고 있지만 구미 시민들 사이에는 통일 공감대가 약하고 민주평통의 존재감도 두드러지지 않은 것이다. 2015, 2016년 탈북민들로 구성된 평양예술단을 초청해 구미지역의 문화예술단체인 한두레마당과 협연하게 한 것은 지역민들과 하나 된 통일 활동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열 번의 통일교육보다 한 번의 문화사업이 시민들에게 통일의식을 더 강하게 심어준다는 생각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과의 화합, 청소년과 여성들이 함께할 수 있는 통일사업을 통해 통일 공감대 확산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우리 98명의 구미시협의회 자문위원들은 그 어떤 어려움도 즐겁게 극복해나갈 준비와 각오가 돼 있습니다.” NUAC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로 영화 ‘인천상륙작전’을 상영했다(왼쪽). 구미시협의회가 주최한 ‘고등학생 역사·통일골든벨’ 대회.

경주 불국사·석굴암

# 삼국통일이 만든 '창조의 공간' 속으로

| 양영훈 여행작가 |

유네스코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발굴·보호·보존하기 위해 1972년에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을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석굴암·불국사,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등재를 시작으로 모두 12점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회를 끝으로 12점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연재를 마친다. 좋은 글을 보내주신 양영훈 작가께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편집자〉

불국사(사적 제502호)와 석굴암(국보 제24호)은 추억의 여행지이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는 중·고등학교 학생 시절의 수학여행이나 대학교 답사여행을 통해 한두 번쯤 안 가본 사람이 드물 것이다. 1980년대까지는 제주도와 함께 신혼여행지로 적잖은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학창 시절에 다녀온 불국사와 석굴암의 기억은 대체로 흐릿하거나 아예 망각된 경우가 많다. 워낙 일정이 빠듯해서 여유 있게 감상하며 그 아름다움을 되새겨보지 못한 탓이다.

20여 년 만에 다시 찾은 불국사와 석굴암은 의외로 새로웠다. 해 뜨기 전부터 한나절 내내 머물면서 보고 또 봐도 식상하지 않았다. 젊지만 미욱했던 시절에는 전혀 안중에도 없던 아름다움들이 고스란히 가슴에 내려앉았다.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와 함께 1995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뒤로는 불국사, 석굴암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도 크게 늘었다고 한다.

불국사는 신라 경덕왕 10년(751년)에 김대성의 발원으로 창건되었다. 〈삼국유사〉는 김대성이 현세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굴암을 창건했다고 전한다. 불국토(佛國土), 즉 부처의 나라를 이룩하는 것은 신라인들의 오랜 꿈이었다. 그리고 통일신라 전성기 때의 신라인들은 자신들의 나라 신라가 곧 불국토이고, 불국사는 현세에 구현된 불교적 이상향이라 믿었다.

## 그렝이 공법으로 쌓아 지진에도 끄떡없어

불국사는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뉜다. 석가모니불을 모신 대웅전, 아미타불을 모신 극락전, 비로자나불을 모신 비로전이 그것이다. 대부분의 목조건물은 조선시대 이후에 지어졌지만, 건물을 떠받치는 석단(石壇)은 창건 당시에 축조되었다. 전각들이 올라앉은 석단 위의 공간은 부처의 나라인 반면, 석단 아래는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이다.

1 석단 위에 날아갈 듯 올라앉은 불국사 범영루. 2 부처의 나라와 사바세계를 잇는 청운교(위)와 백운교(아래). 맨 위의 자하문에 들어서면 부처의 나라이다.

3 다른 외형과 느낌을 지닌 석가탑과 다보탑(오른쪽).
4 통일신라의 3대 금동불상 중 하나로 꼽히는 불국사 금동비로자나불좌상.
5 석굴암이 자리한 토함산에서 바라본 동해 해돋이.

부처의 나라와 사바세계를 이어주는 것은 두 쌍의 다리, 즉 청운교·백운교(국보 제23호)와 연화교·칠보교(국보 제22호)이다. 동쪽의 청운교와 백운교는 전체 34계단으로 구성돼 있다. 위쪽 16단이 청운교, 아래 18단이 백운교이다. 청운교는 푸른 청년, 백운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을 상징하기도 한다. 서쪽의 연화교와 칠보교는 총 18계단이다. 아래 10단은 연화교, 위 8단은 칠보교이다. 이 다리를 통해 물을 건너고 구름 속을 지나야 부처님의 나라에 다다를 수 있음을 상징하는 건축물이다. 청운교·백운교 계단을 올라서 자하문을 지나면 부처의 나라에 들어선다. 하지만 지금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이 다리들로 출입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다리 양쪽에 길게 축조된 석단도 눈여겨볼 만하다. 자연 그대로의 돌과 사람 손으로 다듬은 인공석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뤘다. 큰 지진에도 끄떡없을 만큼 공학적으로 완벽하고 미학적으로도 훌륭하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축성 기술인 '그렝이 공법'이 적용된 구조물이다.

오늘날 불국사에서 가장 유명한 문화재는 다보탑(국보 제20호)과 삼층석탑(석가탑, 국보 제21호)이다. 대웅보전 앞의 한 공간 내에 '단순과 복잡', '절제와 화려'라는 대비된 느낌을 주는 두 석탑이 마주 보고 서 있다. 외형과 느낌이 전혀 다른데도 서로 밀치거나 충돌하지 않는다. 오히려 매우 감각적이고 세련되게 조화돼 있다. 신라인들의 미감이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짐작케 하는 석탑들이다.

여행 정보

**관람 안내**

불국사(054-746-9913)의 입장 시작 시간은 3~10월에 07:00, 11~2월에 07:30이다. 입장 마감 시간은 11~1월 17:00, 2·10월 17:30, 3~9월 18:00이다. 입장료는 어른 5000원, 청소년 3500원, 어린이 2500원이며, 주차료는 당일 1000원(소형)이다. 석굴암(054-746-9933)의 입장 시간은 3월 중순~9월 06:30~18:00, 2~3월 중순·10월 07:00~17:30, 11~1월 07:00~17:00이다. 입장료는 불국사와 같다.

**숙식**

불국사 근처에 경주코오롱호텔(054-746-9001), 불국사관광호텔(054-746-1911), 신라유스호스텔(054-748-7333), 설레임스토리펜션(010-8302-0023) 등의 숙박업소가 많다. 석굴암에서 멀지 않은 곳에 경주시에서 운영하는 토함산자연휴양림(054-772-1254)도 있다. 경주의 소문난 맛집은 시내와 보문관광단지에 많다. 요석궁(한정식, 054-772-1254), 이조한정식(054-775-3260), 도솔마을(가정식백반, 054-748-9232), 이풍녀구로쌈밥(054-749-0060), 영양숯불갈비(한우구이, 054-771-2627), 숙영식당(보리밥정식, 054-772-3369) 등이 경주를 대표하는 맛집 중 하나이다.

**찾아가기**

경주역과 경주시외(고속)버스터미널에서는 10·11번 일반버스, 101·102번 좌석버스가 불국사행이다. 불국사 아래의 대형주차장에서는 매시 40분에 석굴암 가는 셔틀버스(12번 버스)가 출발한다. 소요시간 20분, 요금은 1500원.

동쪽의 다보탑은 목조 건축의 복잡한 구조를 단단한 화강석으로 아름답게 표현한 석탑이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석탑들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 10원짜리 동전에 새겨져 일상의 공간에서 늘 만나게 된다. 그 구조는 우리나라 어디서도 달리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독특하다.

불국사 삼층석탑은 흔히들 '석가탑'이라 불린다. 다보탑과는 상반된 느낌을 준다. 간결하고 깔끔해서 단순미의 극치를 보여준다. 더 넣거나 뺄 것이 없을 만큼 조형적으로도 완벽하다. 이후에 세워진 거의 모든 석탑들의 전범(典範)이 되었지만, 석가탑을 뛰어넘는 걸작은 여태껏 나오지 않았다. 이 탑에서는 목판인쇄 경전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국보 제126호)이 발견되기도 했다.

불국사에는 국보로 지정된 2구의 불상도 모셔져 있다. 비로전의 금동비로자나불좌상(국보 제26호), 극락전의 금동아미타여래좌상(국보 제27호)이 그것이다. 불국사 창건 당시에 조성된 불상들이다. 높이는 각각 1.77m, 1.66m로 비슷하고, 상체의 양감(量感)과 전체적인 신체 비례도 적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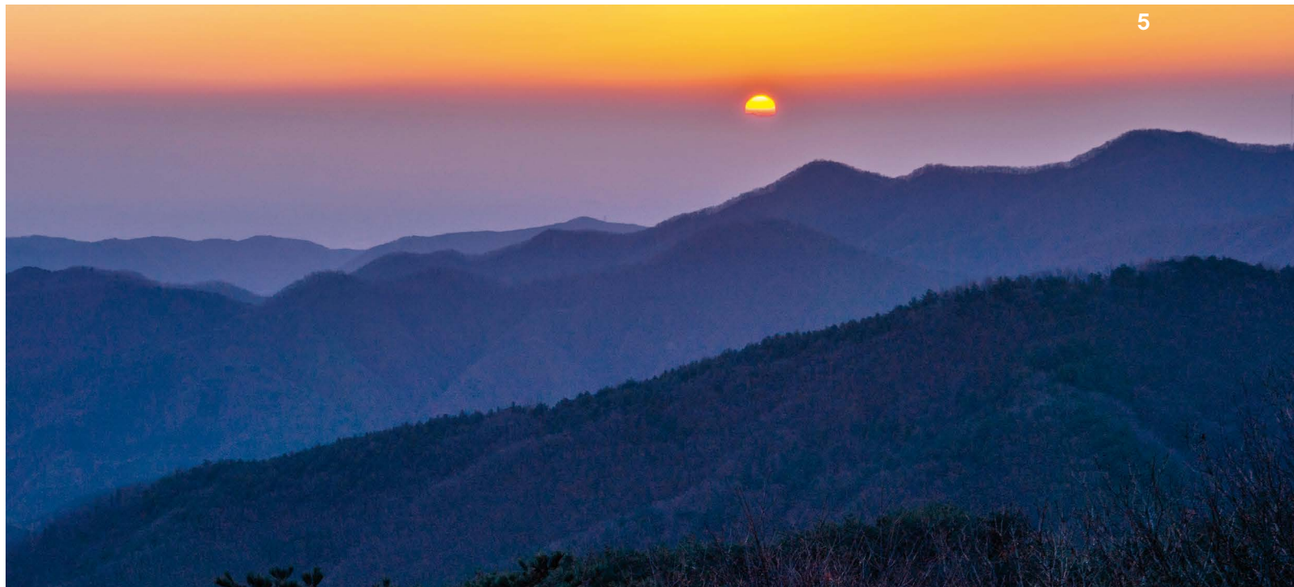
불국사에서 산길을 2.2km쯤 오르면 석굴암 주차장에 닿는다. 거기서 다시 600m를 더 걸어가야 석굴암이 있다. 토함산(745m)의 남동쪽 산 중턱에 위치한 석굴암 앞에서는 창망한 동해가 또렷하게 보인다.

### 토함산에 올랐어라, 해를 향해 앉았어라~

아래쪽의 불국사와 마찬가지로, 석굴암도 경덕왕 10년에 김대성이 짓기 시작해 23년 만인 혜공왕 10년(774년)에 완공했다. 원래 이름은 석불사였다.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인공석굴 안에 본존불상이 놓여 있다. 그 주변의 둥그런 벽에는 보살상, 십나한상, 금강역사상, 팔부신중상, 사천왕상 등 총 40구의 불상이 조각됐지만, 지금은 38구만 남았다. 십일면관음보살상 앞에 있었던 대리석 사리탑도 일제강점기에 없어졌다고 한다.

석굴암의 구조는 크게 직사각형의 전실(前室)과 원형의 주실(主室)로 나뉜다. 두 공간은 '비도(扉道)'를 통해 연결돼 있다. 주실의 원형 천장은 360여 개의 넓적한 돌이 촘촘하게 맞춰진 구조인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뛰어난 건축구조라고 한다.

둥그런 천장 아래 한복판의 연화대에 석가여래좌상이 단정하게 앉아 있다. 초승달 같은 눈썹 아래로 반쯤 감은 눈은 동해 바다를 응시하는 듯하다. 오른쪽 어깨에 걸쳐져 왼팔과 가슴을 덮은 법복은 매우 섬세하고도 사실적으로 표현됐다. 고요하고 차분한 모습의 본존불은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신비감과 한없는 자비로움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동아시아 불교미술의 최고 걸작'이라는 찬사가 하나도 틀리지 않음을 누구나 실감하게 마련이다. NUAC



# 이참에 통일 문제의 '정치화'도 끝내버리자

**박인휘**
–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
미 노스웨스턴대 정치학 박사.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이화여대 국제교류처장 역임. 현재 통일준비위원회 전문위원, 통일부·외교부·국방부 정책자문위원. 저서 〈매력으로 엮는 동아시아〉 등 다수

남북관계를 강의하다가 가끔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한다. "북한은 독립된 나라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대한민국의 일부인가요?" 갖가지 답이 나오지만, 대다수 학생들은 고개를 갸웃거린다. 우리 입장에서 북한을 독립된 정부로 인정해야 하는지, 우리 영토를 점령한 불법 집단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주저하는 게 보통이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론적인 관점에서 우리 사회는 북한이라는 존재를 세 가지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다. 1991년의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이후 한국과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공존하는 두 개의 국가라는 측면이 불가피하게 인정되고 있다. 이 현상은 여타의 국제기구 가입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두 번째 관점은, 북한은 우리의 생명과 안보를 위협하는 불법 집단이라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3조는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돼 있으니, 북한은 불법으로 우리 영토를 점유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매우 현실적인 이해 방식이 있다. 북한을 정식 국가도 아닌, 그렇다고 우리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유한 집단도 아닌 중간쯤으로 보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 개성공단이 운영되었다. 그때 개성을 방문하는 우리 기업인들과 공무원들은 '출경(出境)' 사무소를 거쳐야 했다.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니까 '출국'은 아니다. 그렇다고 호남이나 영남 지방을 방문하듯이 아무 절차 없이 그냥 드나들 수도 없으니 '출경'이라는 이름의 절차를 만들었다.

서론이 길었다. 북한 문제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중심의 평화롭고 행복한 통일 프로세스를 밟아나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균형감을 유지한 접근법이 필요하다. 돌이켜보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는 북한 문제를 우리 국내정치의 연장선에 놓고 보는 경우가 많았다.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국내정치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그렇다고 국내정치적 고려를 어떤 변수보다도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

국가 리더십의 혼란으로 국내정치 상황이 매우 시끄럽다. 지금까지 당연시해온 음성적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널리 퍼지고 있다. 차제에 북한 문제를 국내정치적 관점으로 접근해오던 관행도 개선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북한 문제는 우리 내부 관점으로만 접근해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변수를 너무 강조해도 곤란하다.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들을 균형감 있게 살피면서 우리의 역량과 이니셔티브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문제를 과도하게 국내정치의 연장선에서 접근하는 관행을 확실히 개선해야 한다.

대개의 경우 북한 문제와 통일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의욕이 앞서다 보면 국내정치적 관점을 우선시하는 유혹에서 걸려들 수 있다. 차제에 통일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참에 바른 길을 찾아가자는 것이다. NUAC



통·일·퀴·즈

# 온 가족이 도전하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통일 의지를 고취하고자 '통일골든벨'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통일시대〉 지면에서 열리는 '통일골든벨'을 통해 온 가족이 우리 역사와 통일에 관한 시사상식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01** 2012년 추진됐으나 반대에 부딪혀 무기 연기됐다가 2016년 말 어렵게 서명된 한일 간 협정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두 나라가 공동 대처하기 위해 관련된 군사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맺은 것이다.

①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②한일 기본조약
③ 한일 어업협정 ④한일 비자면제협정

**02** 중국을 비롯한 중화권 국가들이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는 다자간 FTA(자유무역협정)는?

①TPP ②RCEP ③AEC ④NAFTA

**03** 불국토(佛國土)를 이루기 위해 신라 경덕왕 때 현세의 부모를 위해서는 불국사를 짓고,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석굴암을 지었다고 하는 사람은.

①김춘추 ②김유신 ③김법민 ④김대성

**04** 2017년은 정유년이다. 7년 전쟁인 임진왜란은 휴전을 했다가 다시 전쟁에 들어갔는데, 그 전쟁은 정유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정유재란으로 불린다. 2017년은 정유재란이 일어난 때로부터 몇 년 뒤인가?

①240년 ②500년 ③ 420년 ④ 480년

**05**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2016년 11월 30일 만장일치로 의결한 여덟 번째 대북제재 결의안은 몇 호인가?

①2087호 ②2094호 ③2270호 ④2321호

**| 지난 호 〈통일퀴즈〉 정답 |**

**1** ①역외균형 **2** ①고려여행사 **3** ④뮌헨협상
**4** ③넬슨 만델라 **5** ②제2경제위원회

**| 지난 호 〈통일퀴즈〉 정답자 |**

이장택(전북 익산) 조준규(서울 양천구) 정창재(경기 용인) 최영현(부산 금정구) 윤미순(충남 서천군) 우순자(경기 평택) 이창연(대구 수성구) 고정숙(경남 양산) 양혜원(서울 강북구) 서지은(경기 남양주)

**위 문제의 답을 1월 20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 열 분을 추첨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힌트** 〈통일시대〉 12월호(제122호)에 실린 내용을 참고하세요.

**보내실 곳** 우편번호 04605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84 민주평통 〈통일시대〉 '통일골든벨' 또는 '통일퀴즈' 담당자

**이메일** jmisug@korea.kr

※ 이메일로 보내실 때에는 문화상품권을 받으실 주소를 꼭 적어주세요.
우편은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하며,
마감일 이후에 보내신 이메일은 수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